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2014학년도 박사학위 논문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 실태조사

Analysis on Current Piano Curriculum in Colleges of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김 혜 진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 실태조사

지도교수 권 수 미 교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김 혜 진

김혜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유승지

심사위원 김순석

심사위원 이남재

심사위원 김용희

심사위원 전수미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5년 2월 일

감사의 글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던 박사과정, 이제 비로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저에게 학문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그 동안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권수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사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과 배려로 가르침을 주신 유승지 교수님,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순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논문 심사를 맡아주시고,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던 이남재 교수님, 김용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계셔서 이 논문을 전달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셨을 우리 아빠에게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우리 엄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부족한 며느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던 이상만 선생님과 신인수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공부 시작하는 첫 학기에 태어난 큰딸 재경이와 이듬해에 태어난 작은딸 은수, 공부하는 동안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준 우리 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아내를 외조하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항상 기쁨을 주는 우리 남편 이형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김 혜 진

목 차

국문초록 ····· vii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교원 양성기관 ····· 7

1)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변천과정 ····· 7

2)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각 지역별 분포도 ····· 8

3)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대학별 음악관련 학과명칭 ····· 10

4)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 11

2.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피아노의 활용 ····· 22

1) 피아노의 필요성 및 역할 ····· 22

2) 초등교사가 갖춰야 할 건반 연주기술 ····· 29

3)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필요성 ····· 36

Ⅲ. 연구 방법

1.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분석 ····· 46

1) 연구 대상 ····· 47

2) 연구 방법 및 절차 ····· 48

3) 연구의 제한점 ····· 48
2.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 49
1) 연구 대상 ····· 49
2) 연구 방법 및 절차 ····· 50
3) 연구의 제한점 ····· 52

Ⅳ. 연구 결과

1. 전국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 53
1) 초등 음악교육의 중요성 ····· 53
2) 전국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 54
2.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 84
1) 각 학교별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 85
2)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 ····· 109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 148
1)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 ····· 148
2) 음악 실기 교육에 관한 학점 및 수업시수 ····· 151
3) 피아노 실기 수업의 운영현황 ····· 153
4) 학습기자재 ····· 154
5) 예비 초등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재 개발 ····· 156
2. 결론 ····· 160

참고문헌 ····· 164

ABSTRACT ····· 169

부　　록 ····· 172

표 목 차

<표Ⅱ-1> 각 대학별 음악 심화과정 학과 명칭(2014년도 기준) ····· 10
<표Ⅱ-2> 교과교육학 강조형에 대한 비율제안 및 강좌구성 예 ····· 18
<표Ⅱ-3> 반분형에 대한 비율제안 및 강좌구성 예 ····· 19
<표Ⅲ-1> 전국 초등 교원양성 교육기관 ····· 47
<표Ⅲ-2> 설문 연구 대상 ····· 50
<표Ⅲ-3> 설문지의 구성 내용 ····· 51
<표Ⅲ-4>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현황 ····· 52
<표Ⅳ-1> 각 대학별 음악관련 교양과정 ····· 55
<표Ⅳ-2>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 ····· 57
<표Ⅳ-3> 각 대학별 음악관련 심화과정 ····· 61
<표Ⅳ-4> 2004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 ····· 67
<표Ⅳ-5> 2014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 ····· 67
<표Ⅳ-6> 음악 실기에 관한 일반 교육과정 ····· 71
<표Ⅳ-7>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과목 ····· 74
<표Ⅳ-8> 음악 교육과정의 학점 및 시수 ····· 79
<표Ⅳ-9> 피아노 실기 교육과정 개설현황 ····· 82
<표Ⅳ-10> 설문지 항목별 연구문제 ····· 85
<표Ⅳ-11> 과목 개설 여부 ····· 87
<표Ⅳ-12> 개설 과목 수 ····· 89
<표Ⅳ-13> 과목별 영역 ····· 91

<표Ⅳ-14> 이수 학점 ····· 93
<표Ⅳ-15> 이수 학기 ····· 96
<표Ⅳ-16>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 99
<표Ⅳ-17> 그룹 및 분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수 ····· 103
<표Ⅳ-18> 일대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수 ····· 106
<표Ⅳ-19> 강의실에 구비되어져 있는 악기 수 ····· 108
<표Ⅳ-20>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수업 이수시간 ····· 111
<표Ⅳ-21> 수업에 적절한 수강 인원 ····· 114
<표Ⅳ-22> 수업의 운영 및 형태 ····· 117
<표Ⅳ-23> 그룹 수업에 따른 수강 인원 ····· 119
<표Ⅳ-24> 수업 지도 시간 ····· 122
<표Ⅳ-25> 학생들의 수준 파악 ····· 125
<표Ⅳ-26>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 ····· 130
<표Ⅳ-27> 학교 교수가 발취한 교재의 내용 ····· 133
<표Ⅳ-28> 평가 방법 ····· 134
<표Ⅳ-29> 피아노 실기 평가 내용 ····· 137
<표Ⅳ-30> 졸업 시 피아노 실기평가 여부 ····· 139
<표Ⅳ-31> 피아노 졸업 실기 평가 방법 ····· 141
<표Ⅳ-32>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 142
<표Ⅳ-33> 수업의 문제점 ····· 145
<표Ⅳ-34> 수업의 필요성 ····· 147

그림목차

[그림Ⅱ-1] 전국 초등 교원 양성 교육기관 분포도 ····· 9
[그림Ⅵ-1] 음악 심화 교육과정 시수 비교 그래프 ····· 68
[그림Ⅵ-2] 음악 심화 교육과정 과정 학점 비교 그래프 ····· 68
[그림Ⅵ-3] 과목 개설 여부 비교 그래프 ····· 87
[그림Ⅵ-4] 개설 과목 수 비교 그래프 ····· 90
[그림Ⅵ-5] 과목별 영역 비교 그래프 ····· 92
[그림Ⅵ-6] 이수학점에 관한 비교 그래프 ····· 94
[그림Ⅵ-7] 이수학기에 관한 비교 그래프 ····· 96
[그림Ⅵ-8]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비교 그래프 ····· 100
[그림Ⅵ-9]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비교 그래프 ····· 104
[그림Ⅵ-10] 적절한 수업 이수시간 비교 그래프 ····· 112
[그림Ⅵ-11] 수업에 적절한 수강 인원 비교 그래프 ····· 115
[그림Ⅵ-12] 수업의 운영 및 형태에 따른 비교 분석 ····· 118
[그림Ⅵ-13] 그룹 수업에 따른 수강 인원 비교 그래프 ····· 120
[그림Ⅵ-14] 수업 지도 시간에 관한 비교 그래프 ····· 123
[그림Ⅵ-15] 학생들의 수준 파악여부에 따른 비교 그래프 ····· 126
[그림Ⅵ-16]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에 관한 비교 그래프 ····· 131
[그림Ⅵ-17] 평가 방법에 따른 비교 그래프 ····· 135
[그림Ⅵ-18] 졸업 평가 시 피아노 실기 평가 여부에 관한 그래프 ····· 139
[그림Ⅵ-19]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에 따른 비교 그래프 ····· 143

국 문 초 록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 실태조사

김 혜 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피아노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관련 과목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실기 관련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피아노 실기 관련 수업 담당 교수 및 강사, 학과 조교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10문항과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 19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모든 대학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 기초조사는 100%이루어졌으며,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는 총 88.46%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음악관련 교육과정이 각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음악 실기 과목의 경우 학점에 비해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2004학년도에 비해 축소시켜 운영되어지고 있었으며, 대학에 피아노 전공 교수진이 없는 경우에는 심화 교육과정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어있지 않았다.

셋째,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대부분 수준별 분반수업이 아닌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강인원은 26~30명으로 구성하고, 일인당 5분 이하의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디지털 피아노가 설치된 교실에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최대 46대의 디지털 피아노가 한 교실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학교에서는 30명 이상 동시에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섯째, 예비 초등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내용은 '반주능력 향상'과 '초등교과서 중심 제재 곡 다루기'였으며, 42.9%가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과과정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지도 경험이 있는 교원확보와 수업을 맡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관한 교사연수 및 수업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난이도 체계를 고려하고 초등 교과서 중심 재제 곡 등을 포함시킨 우리나라 초등 예비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다.[1]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 교육기본법에서는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 이것은 단순히 성적만으로 우열을 가리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신체적 측면 등 모든 부분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신뢰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2009 개정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져 있다.

>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

1) 법률 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2) 2009년 개정교육과정,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제9조(학교교육).

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이 되는데 기여한다.[3]

이처럼 초등 음악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음악의 기초 기능들을 익혀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더 나아가 음악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음악적 경험과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관해 승윤희 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음악 교육은 인간 누구나 음악을 통해 미적인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하며,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타고난 미적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학교 음악교육의 의무라 할 수 있다.[4]

특히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가르칠 것인지 생각하고, 음악적 개념 습득을 위해 어떤 활동을 선택하여 지도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3)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 별책 12).
4) 승윤희·민경훈·양종모·정진원 공저,『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음악교육』(서울: 학지사, 2013), p. 29.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교[5]또는 일반 대학의 초등교육과[6]를 졸업해야 한다. 교육대학교는 단일 학과인 '초등교육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수업에 맞춘 특성화 대학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도별 10개의 교육대학교가 설립되어져 있다. 초등교육과는 일반대학 안에 설치되어 하나의 학과로 운영되며, 교육대학교와 비교해 볼 때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육대학교나 일반대학 안에 설치된 초등교육과는 모두 초등 교원 양성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치·운영되어지고 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모두 '초등교육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주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 제주대학교와의 통합으로 현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2개의 일반대학 안에 운영되는 초등교육과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까지 총 13개의 초등 교원 양성 교육기관이 설치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초등교육과는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하나로 묶은 교육과정으로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필수 기본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등교육과 학생이라면 모두 이수해야 하는 기본 교육과정이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심화과정 중 한 과목만을 선택해 다른 교과목

---

5)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법률 제708호)에 의해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현재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가 10개의 각 도별 국립교육대학교로 설치되어져 있다.

6) 4년제 종합대학교 안에 설치·운영되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설치되어져 있다.

에 비해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아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음악교육 역시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음악 교육에 대한 기초 영역들을 다루고,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해 초등 교육에 필요한 전 교과목을 이수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시수가 부족하고, 초등 교육에 필요한 전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교과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음악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음악 실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경숙은 "초등 교사들은 음악적 지식이나 실기 능력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음악 교과 지도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7] 정다은의 연구에서는 "음악 수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사들의 음악전문성" 이라고 밝히고 있다.[8] 이와 같이 음악교육은 이론지식 뿐 아니라 실기 능력까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기에 대한 수업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반악기[9]는 피아노이다. 따라서 초등 교사들은 음악교육 중 실기능력에 해당

7) 문경숙, "초등학교 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색,"『이화음악논집』Vol. 13 No. 1(2009), p. 94-133.
8) 정다은,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음악교육연구』Vol. 40 No. 3(2011), p. 57-58.
9) 건반을 가진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오르간, 어쿠스틱 피아노, 디지털 피아

하는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하며, 이러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음악 교육과정으로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범 외의 '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도 교과기본능력으로 피아노 수업을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데,[10] 이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 음악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피아노는 건반 배열이 규칙적이고, 음이 고정되어져 있어 음감형성에 도움을 주며, 시각적으로 모든 음역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다. 또한 음역이 넓고, 독립된 악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반을 누르면 쉽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학습초기의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악기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이다. 하지만 예비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피아노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고 입학한 학생과 피아노를 배웠다 하더라도 초급 수준에 불과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초등학교의 음악 수업은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교사와 학생간의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격형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노 등이 이에 속한다.

10) 장기범·민경훈·권태욱·주대창,『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일부 교사들이 전자매체에 의존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나 노래방기계, CD반주 음원 등을 사용해 버튼 하나만 눌러 학생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으며, 버튼 하나로 음을 높이거나 낮추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명 '클릭 교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음악 수업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간에 음악적 소통도 기대하기 힘들다. 초등학교 음악 수업은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학생들은 다 함께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며, 서로 간에 인간적이고 따뜻한 소리의 전달로 인해 학생들의 감수성 개발과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수업이 바람직한 형태이기 때문에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서 담당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음악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아노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하고,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교원 양성기관

1)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 양성기관은 1985년 설립된 한성사범학교[11]로 소규모의 사립 사범학교를 통해 설립되어졌다. 초기에는 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과와 교원속성학과를 설립하였고, 중기 이후에는 전국에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10개의 사범학교 중에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개편된 3개교[12]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사범대학과 새로 신설된 10개의 사범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였다. 1951년에는 1개의 사범대학을 설립해 총 18개의 사범학교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였다. 이 후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을 제정하고 1962년 10개의 사범학교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개편하고 대학 교육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초등교원을 양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초등 교원의 수는 많아지고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는 16개로 급증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1977년에는 각 시·도당 1개교를

---

11)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으로 정원 100명의 2년제 정규과정(본과)과 정원 60명의 6개월 단기과정(예과)으로 이루어져 있다.(한국교육 삼십년 편찬위원회, 1980), p.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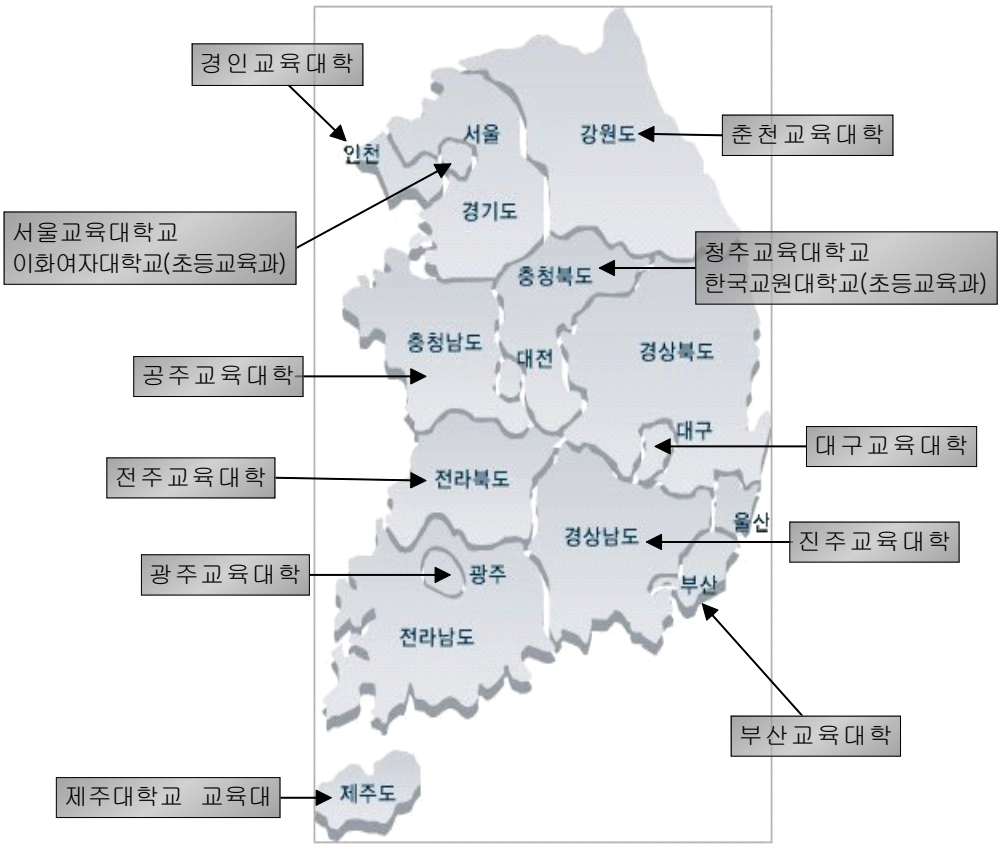
12) 사범학교 가운데 경성 사범학교와 경성 여자사범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대구사범학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개편·통합되었다.

원칙으로 다시 교육대학을 편성하게 되었다. 1980년 8월 7일 교육대학을 4년제로 개편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고, 1992년 '대학 설치 기준령'(대통령령 제4511호)에 따라 교육대학은 대학이나 사범대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1993년 교육대학교로 개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11개의 교육대학교(서울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제주교대)가 설치되었고, 2008년 3월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와 통합하게 되면서 현재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 안에서 운영되는 3개(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의 초등교육과가 설치되어져 있다.

2)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각 지역별 분포도

우리나라에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 안에 개설된 3개의 초등교육과가 있다. 그 중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대학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치되어져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초등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대학교 및 초등교육과의 각 지역별 분포도이다.



[그림Ⅱ-1] 전국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 분포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설치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제주지역에 한 곳씩 교육대학교가 설치되어져 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는 각각 두 개의 초등 양성기관이 설치되어져 있고 경인교육대학교에는 경기캠퍼스와 인천캠퍼스로 나누어 설치되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총 13개의 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3)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대학별 음악관련 학과명칭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서는 초등 교과목에 맞추어 심화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음악교과의 경우 '음악교육과', '음악교육전공', '초등음악전공'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대학 안에 운영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초등교육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와의 통합으로 현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음악교육전공'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 각 대학별 음악 심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과의 명칭이다.

<표Ⅱ-1> 각 대학별 음악 심화과정 학과 명칭(2014년도 기준)

시 · 도	학교명	음악 심화과정 명칭
서울특별시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인천광역시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원도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충청북도	청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충청남도	공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전라북도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광주광역시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대구광역시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경상남도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산광역시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음악교육전공

4)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 또는 일반대학 안에 운영되는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원자격은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자격 제도로서 교사자격을 취득하면 효력은 종신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초등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서류 심사만으로 교사 자격을 검정 받는 무시험검정[13]으로 발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대학교 또는 일반대학의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초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등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DB'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의 학생 수는 3,892명이고, 졸업생 수는 5,055명이다. 또한 2014년 전국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7,400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20%축소된 6,000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모든 학생들을 예비 초등교사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교육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13) 법률 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가. 교육과정의 목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각 대학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유능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효과적인 지도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중등교육과는 달리 전 교과목을 학급 담임교사 혼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초등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사 한 명이 전 교과에 대한 전문적 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특수성과 지향하는 목적을 다르게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특수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 윤리를 갖추도록 함.
둘째,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체득하게 함.
셋째,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14]

이처럼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은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살펴보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1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과과

14) 고등교육법시행령, 법률 제12174호, 제44조, 일부개정, 시행 2014. 01. 01.
15) 고등교육법시행령, 법률 제12174호, 제28호, 일부개정, 시행 2014. 01. 01.

정은 학위과정 또는 자격 취득과정에 따라 설정해 놓은 이수과정을 규정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기본적인 사항(이수연한, 수업일수, 수업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각 교과별로 세부적인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교과과정의 전문적 특성 및 구조

초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전 교과목을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초등 교사는 전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전세경 외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교육은 미래 아이들의 복잡한 현대 생활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풍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된 전 교과를 담당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대학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16] 또한 곽영순·최승언은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고,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과내용, 교과교육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7]

초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초등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교직)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공과정은 다시 세

---

16) 전세경·김신호·이명주, "초등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초등교육학회지』Vol. 14 No. 3(2001), p. 89-116.
17) 곽영순·최승언, "과학과 수업평가 기준의 역할 및 개발 방안 연구,"『한국지구과학회학회지』Vol. 26 No. 5(2005), p. 367-376.

분화되어 교육학교육,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심화과정, 교육실습, 졸업논문, 사회봉사로 나누어 134~147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시수는 152~165시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전 교과를 모두 교육시켜야 하는데 정해져 있는 학점만으로는 전 교과목을 교육시키기는 수업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에 비해 수업시간을 길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교양과정은 교원양성의 한 영역으로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 교원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교양과정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생활과학, 체육·예술, 자유선택, 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학문 영역을 초월하여 인간, 사회, 우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전문과정의 기반이 되면서 교사로서 폭 넓은 교양과 지도적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과정 영역이다.[18]

전공과정은 교직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초등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중 가장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전공과정은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실기, 예·체능실기, 특별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춰 학교 재량시간과 자유선택 과정이 학교마다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

18) 남억우 외, 『교육대학 발전모형과 평가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 43.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중에서 심화 교육과정은 교과 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교과에 비해 선택한 교과는 더욱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교육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심화 교육과정에서의 전공 선택 여부는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선택한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17~24학점 정도의 교육을 더 받고 때문에 사범대학에서의 전공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곽현규는 "교육대학교의 심화과정은 해당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교과전담을 수행할 수준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하였다.[19] 하지만 석문주는 교육대학교의 심화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교육대학의 심화과정은 부전공의 성격도 아니고, 전공의 성격도 분명하지 않다. 일반대학의 부전공은 하나의 전공과정이 있고, 그 전공과정과 유사한 다른 분야를 부차적으로 더 공부하는 것인데,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육이 전공이면서 그 중에 한 교과 또는 한 분야를 보다 수준 높고 심도 있게 배우는 과정이다. 또한 심화과정의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이 일정하지 않다.[20]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은 단일 학과인 초등교육과로만 구성되어져 있고 각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국 교육대학교의 초

19) 곽현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음악교과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Vol. 26 No. 5(2010), p. 69.
20) 석문주,『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p. 15.

등교육과는 매년 300~4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과목들은 전공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져 운영되고 있다.

장기범 외[21]는 교육대학교의 음악 심화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의 수준[22]을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변형시켜 적용시킬 것을 권장하였다.

다음은 장기범 외가 제시한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비율 제안 및 그 강좌 구성의 예이다.

a. 교과교육학 강조형

교과교육학 강조형[23]은 교과교육학에는 강점이 있고, 교과실기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피아노', 'ICT활용 음악교육'의 교과목을 교과기본능력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학으로 교과교육론과 초등음악 교재연구를 교과목 구성으로 60% 반영시키고 있으며, 교과내용학으로는 가창중심, 기악중심, 감상중심, 국악중심으로 각각 나누어 실기를

21) 장기범·민경훈·권태욱·주대창,『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20.
22)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준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첫째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초 3-5학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지도교수의 평소의 관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셋째로 학생의 피아노, 혹은 다른 독주악기나 가창 기능을 준거로 하여 판단 할 수 있다.
23) 장기범 외, 위의 글, p. 140.

포함시켜서 40%를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교과목의 구성은 총 22학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Ⅱ-1> 교과교육학 강조형에 대한 비율제안 및 강좌구성 예

교과영역		교과목 (22학점의 예)
교과기본능력		피아노(2), ICT활용 음악교육(2)
교과교육학 60%		교과교육론(3), 초등음악 교재연구(3)
교과내용학 (실기포함) 40%	가창중심	초등합창실기 및 지도법(2)
	기악중심	초등기악실기 및 지도법(2)
	감상중심	초등감상지도법(2)
	국악중심	초등국악교육론(3), 초등국악가창실기 및 지도법(2)

b. 반분형

반분형[24]은 교과내용학 수준이 보통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피아노', 'ICT활용 음악교육'의 교과목을 교과기본능력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학에는 교과교육론과 초등음악 교재연구를 교과목 구성으로 50%를 반영시키고 있으며, 교과내용학으로는 가창중심, 기악중심, 감상중심, 국악중심으로 각각 나누어 실기를 포함시켜서 50%를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교과목의 구성은 총 22학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24) 장기범 외, 위의 글, p. 141.

<표Ⅱ-2> 반분형에 대한 비율제안 및 강좌구성 예

교과영역		교과목 (22학점의 예)
교과기본능력		피아노(2), ICT활용 음악 교육(2)
교과교육학 50%		교과교육론(2), 초등음악 교재연구(2)
교과내용학 (실기포함) 50%	가창	초등가창실기 및 지도법(2), 초등합창실기 및 지도법(2)
	기악	초등기악실기 및 지도법(2), 악기론(2)
	감상	초등감상지도법(2)
	국악	초등국악교육론(2), 장구실기 및 지도법(2)

c. 교과내용학 강조형

교과내용학 강조형[25]은 교과내용학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과기본능력으로 '피아노', 'ICT활용 음악교육'의 교과목을 교과기본능력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학에는 교과교육론과 초등음악 교재연구를 교과목 구성으로 하여 40%를 반영시키고 있으며, 교과내용학으로는 가창중심, 기악중심, 감상중심으로 각각 세분화시키고 이에 따른 각각의 실기를 포함해 60%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실기 수준을 고려해 각 영역별 22강좌를 기준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25) 장기범 외, 위의 글, p. 141.

<표Ⅱ-3> 교과내용학 강조형에 대한 비율제안 및 강좌구성 예

교과영역		교 과 목
교과기본능력		피아노(2), ICT활용 음악 교육(2)
교과교육학 40%		교과교육론(2), 초등음악 교재연구(2)
교과내용학 (실기포함) 60%	가창중심 (22강좌의 예)	초등가창실기 및 지도법(3), 초등합창실기 및 지도법(3) 초등창작실기 및 지도법(2), 초등감상지도법(2) 초등국악가창실기 및 지도법(2), 장구실기 및 지도법(2)
	기악중심 (22강좌의 예)	초등가창실기 및 지도법(2), 초등기악실기 및 지도법(3) 악기론(3), 초등창작실기 및 지도법(2) 장구실기 및 지도법(2), 단소실기 및 지도법(2)
	감상중심 (22강좌의 예)	초등가창실기 및 지도법(2), 초등기악실기 및 지도법(2) 초등창작실기 및 지도법(2), 초등감상실기 및 지도법(3) 음악사(3), 단소실기 및 지도법(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범 외가 제시한 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교과교육학 강조형', '반분형', '교과내용학 강조형'으로 나누고 교과기본능력에 있어서 '피아노' 와 'ICT활용 음악교육'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피아노 실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장기범 외가 제시한 '교과교육학 강조형', '반분형', '교과내용학 강조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첫째, 심화과정의 학점 수를 총 이수학점 대비 15%이상으로 설정한다.

둘째, 실기교과의 경우 각 대학이 허용하고 있는 1학점 2시간제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교과목의 표기명칭을 정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함. 특히 교과내용학의 과목명은 국악실기, 단소실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과교육학은 'OO0 지도법'의 형태로 명시한다.

넷째, 교육대학의 특성과 제한된 학점 운영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내용과 교과교육이 '국악실기 및 지도법' 등과 같이 연결된 교과목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26]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모두 일반 교육과정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화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심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전문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장기범 외의 연구에서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 및 능력,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각 과목별 최소한의 표준안은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수진의 전공여부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되어지고 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교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 대학이 모두 초등 교원 양성이라는 같은 교육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진의 전공 여부에 따른 획일적인 교과목 편성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6) 장기범 외, 위의 글, p. 45.

또한 장기범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음악 심화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목 표준안은 2014년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를 적용시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과목을 편성할 때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최소한의 교과목 표준안을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맞추어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 수업을 운영할 때에 초등 음악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2.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피아노의 활용

1) 피아노의 필요성 및 역할

초등학교 교사는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하며, 장구를 활용해 전래동요 혹은 민요를 부를 때에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음악 수업 시간에는 피아노 반주와 장구 반주가 초등 음악과 교수·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기본 도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아노의 역할은 반주, 시창, 청음, 창의성 개발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악기이다. 이처럼 교육용 악기로 활용되고 있는 피아노에 관해 이연경·함주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피아노는 폭 넓은 음역과 화음 연주가 가능하고 규칙적인 건반 배열에 의해 이론적 설명이 효과적이며, 반주악기로서의 활용성을 지니는 등 다양한 음악적 표현 기능 및 교육용 악기로서의 유용성으로 인해 음악 지도의 기본 악기로서 인정되어 왔으며, 피아노를 비롯한 오르간과 같은 건반 악기는 과거 수십 년간 학교 음악수업의 기초악기로 사용되어 왔다.[27]

---

27) 이연경·함희주,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창조적 건반 기술 신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음악교육연구』Vol. 20 No. 1(2001), p. 124.

초등학교에서 피아노를 활용한 음악 수업은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동기 유발과 다양한 음악 지도방법을 통해 음악적 이해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음악 교육자들은 건반악기를 활용한 음악 교육을 권장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음악교육에 있어서 초견 능력과 반주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피아노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초등 교사에게 피아노에 관한 연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시키고, 더 나아가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전 전공별 선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전공별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실기 능력을 키우고, 대학 입학 후에도 본인의 전공에 맞추어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할 때에 교과 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도 실기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교과에 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에는 이론 교육 뿐 아니라 실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가 모두 개설되어져 있었고,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는 초등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 중에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모두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 초등 교사들 중에는 피아노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음악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 초등 교사로 배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피아노의 경우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습득으로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 시간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피아노 실기의 경우에는 아동에 비해 성인 학습자들이 실기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의 건반악기 실기능력에 대해 언급한 이연경·함주희는 "교사의 건반 연주 기능은 여러 음악학습 영역의 수업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실제 음악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건반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s)을 충분히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았다.[28] 여기서 말하는 실용적인 건반기술이란 "초견, 반주, 조옮김, 건반화성, 즉흥 연주, 악보 없이 친숙한 노래 듣고 치기, 스코어 리딩, 앙상블"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예비 초등 교사들이 피아노에 관한 연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실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 음악수업에 있어서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좋은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피아노 연주 기술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견 능력' 과 '반주 능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킹스버리(C. L. Kingsbury)는 "고등학교 음악

28) 이연경·함희주, 위의 글, p. 124.

교사들은 교내 합주나 합창용 총보(Score)를 지도할 때에 최소한 2, 3, 4성부의 악보를 동시에 '초견'으로 연주하거나 '반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반악기 연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9]

초등 교사들이 음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피아노에 관한 연주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피아노 연주 기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이 음악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초견, 독보, 반주, 조옮김, 건반화성, 즉흥연주 등 건반악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들을 습득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프리번(F. G. Freeburne)은 "미래의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피아노 학습기간이 필요하며, 전공 악기에 관한 연주 수업은 졸업 이전에 이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30] 이는 예비 초등 교사가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에 걸쳐 피아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피아노 연주기술은 교사가 되기 전까지 모두 습득해야하고 교사의 전공 분야 악기에 관해서는 전문가적인 연주까지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악기인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동시에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Comprehensive Musicianship)[31]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이란 음악교육을 통하여 단지 연주 기술 뿐 아니라 초견, 건반 화성, 반주, 음악 분석, 청음, 스케일, 아르페지오, 테크닉, 전조, 조바꿈, 즉흥 연주, 암보 능력

---

29) C. L. Kingsbury,"Harmony skills used by selected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teachers,"(Indian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45).

30) F. G. Freeburne, "Functional secondary piano training of music teachers," *Dissertion Abstract Internaional,* UMI No.00-06352, Vol. 13(1952).

31) E. D'Arms, "Contemporary music project," *Music Educators Journal,* 59(1973), 36. J. Lowder, "Evaluation of a sight-reading test administered to freshman piano class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21(1973), p. 68-73.

등 다양한 연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초등 교사가 갖춰야 할 피아노 연주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아노 연주 기술이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학습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예비 초등 교사를 위한 교재연구가 시급한 일이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피아노 연주 기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비 초등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수업에 필요한 건반악기 연주 능력을 습득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음악 교육에 있어서 피아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피아노는 음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음역이 넓고, 음색이 풍부하며, 독립된 악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율로 조율되어 있어 이조와 전조, 조옮김 등을 통해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악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리듬, 가락, 화음의 표현이 모두 가능한 악기이며, 음악 수업을 지도할 때에 가장 유용한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악기가 피아노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아노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윈슬로와 달린(R. Winslow & L. Dallin)은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있어서 피아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반 악기는 평균율로 조율되어 있어 가창과 기악 활동에서 반주 악기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양하게 이용된다.

둘째, 건반 악기는 창작 학습에서 가락의 창작뿐만 아니라 리듬, 화성 등의 창작에서도 활용된다.

셋째, 건반 악기는 감상 수업에서 가락 악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악곡도 주제나 동기, 박자, 조성의 변화 등을 들려줄 수 있어 감상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넷째, 초등 음악수업에서 건반악기를 활용하여 음이름, 조성, 화성, 악곡의 진행 등 음악 이론을 쉽게 소개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는 음역이 적당하지 않아 부르기 어려운 노래를 건반악기를 통해 들려 줄 수 있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건반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반악기를 소개하거나 연주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32]

위와 같이 피아노는 초등학교 음악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피아노를 활용한 '반주 능력'과 '초견 능력' 이외에도 정확한 리듬, 다양한 화성, 즉흥연주 등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교사가 음악 수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수업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피아노 실기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간편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피아노 반주보다는 컴퓨터 반주나 CD 반주, 노래방 반주 등을 사용해 수업을 쉽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만을 틀어놓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미디, 컴퓨터, CD반주 등 수업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

32) Robort Winslow & Leon Dallin, "Music skill for classroom teacher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80), 5th ed, p. 99.

어서 교사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기계에 의존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미성숙 아동기에 음악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무의식적인 기계사용으로 인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본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음악적 경험은 학생들의 음악성 개발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과 인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전인적 인간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기계에 의존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과 교사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음악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수업이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은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달려 있다면, 음악 교육의 질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음악 교육이 개발·보급되고 최상의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교사의 질이 낮다면 음악 교육에 있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초등학교 음악 수업을 위해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역할은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석문주는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구조화하는데 성공적인 교사는 음악교사 교육과정의 생산물이며, 교사는 그들이 훈련받은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사 교육 기관은 예비 교사들이 학교 음악교육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3]

---

33) 석문주, “2000년을 향한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의 개선 연구,”『연세음악연구』Vol. 3(1995), p. 2.

따라서 초등학교 음악 교사에게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피아노에 관한 기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초등 교사로서 좋은 수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인 것이다.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아노에 관한 다양한 연주 기술 능력과 활용법을 키우게 되면 학생들을 더욱 잘 지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교사는 음악 수업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업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초등 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음악 수업을 위해 스스로가 피아노에 관한 연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초등교사가 갖춰야 할 피아노 연주기술

건반악기인 피아노를 통한 연주기술은 반주, 초견, 전조, 이조, 건반화성, 조옮김, 즉흥연주 등의 다양한 연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연경·함희주, 킹스버리 이외에 많은 연구에서처럼 초등학교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아노에 관한 '초견 능력' 과 '반주 능력'은 길러야 한다. 이 외에도 전조, 이조, 건반화성, 조옮김, 즉흥연주 등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견 능력'과 '반주 능력'은 꼭 길러야 하는 피아노 연주기술 능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초견 능력' 과 '반주 능력'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초견

'초견(sight reading)'이란 처음 보는 악보를 연습 없이 그 자리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초견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악보읽기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초견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초견 능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음정, 리듬, 박자 등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에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악보를 읽을 줄 아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초견으로 악보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눈으로 악보를 보고, 뇌가 악보를 기억하며, 이에 따라 손 근육의 움직임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이때 귀는 올바르게 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초견 방법을 통해 악보에 그려진 음표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까지도 즉시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교육 심리학자인 머셀(J. L. Mursell)은 "악보 습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학습의 형태에서든지 프레이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4] 이는 악보에 나와져 있는 음표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음형이나 프레이즈를 통해 악보를 읽는 방법을 키워나가며 악보에서 음악을 느끼고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초견을 스스로 관찰한 번스타인(S. Bernstein)은 "초견을 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음악적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그 능력은 기억력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았다.[35] 즉 어떤 음들이 다음

---

34) J. Mursell. & M. Glenn,『음악교육심리학』(서울: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세광음악출판사, 1991), p. 167.

35) S. Bernstein,『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백낙정 역, (서울: 음악춘추사,

에 나올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지나간 음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곡 전체에 대한 즉흥적 반응을 깨닫고 건반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감으로써 곡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반악기 수업에 있어서 초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초견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와 초견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음악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악보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많은 곡들을 다루어 보았다 하더라도 쉬운 곡조차 초견으로 연주 할 수 없다면 건반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초견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번스타인(S. Bernstein)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초견은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한 곡을 연마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여 반복연습을 하게 되는데 작품완성에 필요성에 따라 반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반복연습은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견능력을 학습하게 되면 폭 넓은 레퍼토리를 다룰 수 있으며 여러 작품의 내용을 용이하게 다가가고 빨리 친숙해질 수 있어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

둘째, 초견은 음악적 식별능력을 향상시킨다. 음악적 동기나 리듬의 효과, 화성진행과 주제의 반복, 변형, 대조까지 장르별 음악적 특징요소들까지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게하고 작품 전체의 의미파악이 빠르고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곡의 성격을

1993), p. 64.

명확하게 식별하여 연주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초견은 기억력을 증대시키고 음악을 통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초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 초견은 한 작품을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36]

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곡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초견 능력은 발달한다. 초견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음악에 대한 흥미도 느끼게 되고 음악적 특징 요소들까지도 빠르게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을 파악하고 연주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또한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어 음악을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강화시켜 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초견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초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나. 반주

초등학교 음악 수업시간에 교사가 피아노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창영역에서의 반주이다. 교사들은 피아노 반주를 활용해 화성감각이나 리듬감각등을 익힐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36) S. Bernstein, 위의 글, p. 60.

학생들은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게 함으로써 심성 개발과 음악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기가 자신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아노로 노래의 선율이나 화성을 연주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될 수 있다.

반주란 단지 악보에 쓰여 진 대로 박자, 리듬만을 잘 맞추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파트너와의 적절한 음악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주자들은 작곡가의 의도, 작곡가가 본 작사가의 요구, 파트너들의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요구와 상태를 지키고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당연히 반주자 스스로의 요구 또한 지키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반주는 혼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아노 학습에 있어서 '반주 만들기' 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음악 학습에 관해 권수미는 "단순히 몇 가지 연주기술이나 음악적 지식의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견, 즉흥연주의 능력개발이나 음악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여 음악구조적인 이해와 연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피아노 학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37] 또한 피아노 활용한 반주의 역할은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알맞은 음역과 적당한 박자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정확한 멜로디 등을 들려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반주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출판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주 교재들의 문제점에 대해 권수미(Kwon, Sumi)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37) 권수미,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음악과 민족』, Vol. 39(2010), p. 317.

우리나라 대다수의 반주 교재들을 살펴보면 '건반화성'에서 다루는 다양한 조성에서의 이론, 화성진행, 전조, 조바꿈과 같은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활동을 제공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화음과 리듬패턴을 사용한 기능적인 반주 채우기 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피아노 반주교재의 교육적인 목표, 학습내용 및 구성, 학습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고사하고,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38]

초등학교 음악 수업시간에 있어서 피아노는 가창지도, 발성지도, 음계지도, 합창지도, 반주지도 등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 중 피아노를 활용해 가창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 선율에 적절한 화성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곡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형태의 반주 유형을 찾아 노래에 맞춰 연주 할 수도 있고, 음 높이가 다른 학생들을 고려해 피아노를 활용한 조옮김으로 다양한 음 높이를 맞춰줄 수도 있다. 또한 기악 합주의 경우에는 넓은 음역으로 고음과 저음을 함께 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악기와 함께 합주하기에도 용이하다. 이 외에도 선율공부, 음계공부 등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있어서 피아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용 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피아노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점점사라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교육이 등장하고 음악 수업 역시 이러한 ICT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38) Sumi Kwon, A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e for college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 D,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006).

ICT 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사용은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아노 연주능력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진 교사들이 이러한 기계 등에 의지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ICT의 과잉 사용으로 인해 음악 수업시간에 단순히 기계만을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음악 수업은 인성교육이다. 음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교류하고,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며, 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것이 진정한 음악 수업이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교과내용 중심의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라면 피아노 반주 능력에 있어서 주요 3화음을 활용한 화음 반주 및 조옮김 등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이수학기를 1~2학기 정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음악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 이수 시간을 국내·외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최소 학습 기간에 근접 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악 교육에 있어서 테크놀러지(Technology)를 활용한 수업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피아노 반주의 경우에는 가능한 교사의 직접 시연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음악적 흥미를 느끼게 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켜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음악적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필요성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심화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교사 한 명이 학생 한 명을 지도하는 일대일 개인레슨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수업 방식이고,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인원의 학생들을 한 교실 모여 놓고 규칙적으로 만나 피아노 수업을 운영하는 학습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지도할 때에 수업의 형태를 그룹 피아노(Group piano) 수업과 클래스 피아노(Class piano) 수업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권수미는 그룹 피아노와 클래스 피아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클래스 피아노는 일종의 그룹피아노 학습의 유형이나, 지도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룹피아노 학습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룹레슨은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연주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학습 목표가 있다면, 클래스 피아노는 다수의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교실에 모여,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약하지만, 초견, 반주, 화성, 스케일, 아르페지오, 즉흥연주 등과 같은 기능적인 피아노 연주 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s)을 익히는데 그 중점을 둔다.[39]

39) 권수미, “음악대학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 실태조사,”『음악교육연구』 Vol. 31(2006), p. 14.

피아노의 수업지도 방식은 크게 클래스 피아노(Class piano), 그룹 피아노(Group piano),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 개인 레슨(Private lesson) 수업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룹 피아노 수업의 경우에는 개인레슨 수업의 반대어로 모든 형태의 그룹 지도방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아노 수업지도 방식의 유형에 관해 이연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그룹 피아노는 초보자부터 대학의 피아노 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4명이나 5명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실용적 피아노의 기술 연마와 함께 레퍼토리(repertory)의 학습과 연주를 위한 지도에 큰 비중을 둔다. 반면 클래스 피아노는 학교나 대학의 비피아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략 12명에서 25명 정도의 클래스 규모로 레퍼토리 중심의 작품·연구면 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피아노 기능 기술의 연마를 위주로 한다. -초견, 건반화성, 조옮김, 코드진행, 듣고 치기, 테크닉.[40]

이처럼 권수미, 이연경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룹 피아노 수업의 유형과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클래스 피아노 수업 유형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일정한 시간 안에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피아노에 관한 다양한 연주 기술 등을 익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피아노 수업은 일

---

40) 이연경, “Group Piano 교수법의 효율성에 관한 관계 문헌의 조사 및 분석,” 『이화음악논집』 No. 11(1988), p. 20.

대일 개인레슨 방식이 효과적이겠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이나 비피아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수업의 경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유형이다. 특히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대부분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최소 26명~30명 정도가 동시에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피아노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초견, 반주, 화성, 스케일, 아르페지오, 즉흥연주, 청음훈련, 음악이론 등 기능적이고 테크닉적인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진희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교육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포괄적인 음악성 발달을 위한 광범위한 음악적 지식과 능력 기반
둘째, 초급수준에서도 예술적으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음악을 사고할 줄 알고 음악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음악을 올바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태도와 능력
다섯째, 바람직한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테크닉
여섯째, 일생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기반[41]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기능적인 피아노 연주기술(functional keyboard skills)을 습득해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comprehensive musicianship)을 목적으로 개설되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이 음악대학의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실기수업,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41) 성진희, “클래스 피아노란 무엇인가,”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p. 3.

수업 등에 개설되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에 맞추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진들이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운영 형태 및 목적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에 배웠던 방식(일대일 개인레슨) 그대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대부분 26명~30명 정도가 일정한 시간에 모여 수업이 진행되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교수 및 강사들은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에 맞추어 효과적인 수업의 유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등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업의 유형은 클래스 피아노인데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5분 이하의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다른 강좌와는 달리 단순히 피아노를 가르쳐 온 경험만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다. 또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피아노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대한 유형 및 교육 목적, 수업방법, 수업내용 등 수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고, 학습되어진 교사가 가르쳐야하는 수업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대부분 피아노 연주를

전공했기 때문에 수업을 맡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여 놓았을 뿐 피아노 지도 유형은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 정정현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피아노 교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지도방법으로 교사들이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할 경우 음색이나 터치 부분에 있어서 어쿠스틱 피아노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42]

클래스 피아노의 경우 1950년대 중반 전자 피아노(Electronic piano)의 개발로 새로운 시설에 맞는 교수 방법과 절차 등을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온 교수 방법이다. 1956년 미국의 벨 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에 최초로 클래스 피아노 랩(Piano Lab) 시설이 설치되었고, 같은 해 인디애나 벨 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에서 클래스 피아노 실험 연구소(Class Piano Laboratoy)가 최초로 설치되면서 클래스 피아노의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피아노 랩이 설치되어져 있는 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 형태로 일반적인 어쿠스틱 피아노와는 다르게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을 지도하는 교수 및 강사들이 디지털 피아노에 관한 기능 및 활용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 단지 피아노 음색에만 맞춰놓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42) 정정현, "초보 피아노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통한 교사 교육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p. 47.

디지털 피아노의 경우 어쿠스틱 피아노와는 다르게 상·하 건반의 음색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 함께 앉아 중주수업이 가능하고, 같은 곡이라도 다양한 음색을 활용해 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악기 한 대에 많은 음색과 기능들이 내장되어져 있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음악적인 표현이나 음색의 다양성 및 중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비교시켜 줄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디지털 피아노의 경우에는 서양 리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굿거리, 세마치 등 국악 리듬도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리듬에 맞추어 연주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가 개별지도를 해야 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헤드폰을 사용해 개인 연습 또는 과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집중해서 연습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개인 연주를 즐길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듀엣이나 4~5명이 한 그룹을 만들어 앙상블을 연주할 수도 있고, 전체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합주곡도 연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가 설치되어져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하고, 디지털 피아노 기능 등을 익혀 짧은 수업시간 안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고찰과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지도 할 수 있는 교원확보가 필요하다.

우즐러(M. Uszler)와 래리머(F. Larimer)는 피아노 교수법 학회(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에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위한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학습내용

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피아노 교수학 전공을 위한 교과과정의 학습내용이다.

1. 학습 이론과 적용
2. 피아노 지도에 관련된 문헌 교재 및 자료
3. 전문 피아노 교사의 관찰
4. 그룹과 개인 피아노 지도
5. 피아노 지도안 개발
6. 피아노 지도 실습[43]

이와 같이 피아노 교수학 전공은 그룹 피아노 지도와 개인 피아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아노 지도방법 및 유형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클래스 피아노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악대학의 비피아노 전공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을 조사한 권수미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련된 과목을 운영할 때에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을 띠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일대일 개인레슨 형태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클래스 피아노 지도를 위한 전문교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43) M. Uszler & F. Larimer,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 college curriculum: 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Part I: The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major." Princeton, NJ: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1984.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경우 클래스 피아노 수업으로 운영하도록 교과과정이 개설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도 방법에 있어서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는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올바른 운영형태 및 수업방법 등을 잘 모르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돈(E. Haddon)의 '초보 기악 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교사들의 교육 방식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규 훈련보다는 개인적 성향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향상되었으며 자신이 배웠던 방식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스승을 의지하고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최근 교육 방법이나 교육학 문헌과는 전혀 달라 도움 받지 못했다."라고 답하고 있다.[44] 이것은 다시 말해 과거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경험들이 현재의 교육 방식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 배웠던 교육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교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에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새로운 교수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거 자신이 받았던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의 경우 전공실기 과목을 축소시키고 클래스 피아노 수업으로 바꾸어 운영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음악 전공실기 과목의 경우 대부분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

44) E. Haddon, "Instrumental and vocal teaching: How do music students learn how to teach?."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Vol. 26 No. 1(2009), p. 57-70.

로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도하다보니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 비용이 많이 늘어나 이를 절약하기 위한 대학 본부 측의 행정적인 조치로 피아노 전공 실기 과목을 클래스 피아노 수업으로 바꾸어 운영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제대로 맡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 부족하고, 이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들조차도 대부분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데 사실상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지도하다보니 일인당 소요되는 지도시간이 상당히 짧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에 학생들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한 그룹의 학생들이 다수의 어쿠스틱 피아노 또는 디지털 피아노가 갖춰진 교실에 규칙적으로 모여 피아노 학습을 하는 형태로서 이론, 초견, 반주, 앙상블, 즉흥연주, 건반화성 등 기능적인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지도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전체, 모둠, 개인별로 적절히 분배하여 지도할 수 있는데, 이때에 이론 및 합주 등에 관한 수업은 그룹으로 운영하며 클래스 전체를 지도 할 수도 있고, 앙상블 연주 등에 관한 수업은 부분 모둠별로 나누어 지도 할 수 있으며, 학생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지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 나머지 학생들은 헤드세트(Headset)를 사용해 반드시 과제를 하거나 개인 연습을 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교사는 강의실 전체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클래스 피아노 수업이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 피아노 유형대로 지도해

야 하는데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문 Ⅳ-2.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업에 대한 발전 방안과 효과적인 수업의 운영형태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조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본다.

둘째,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과 조교 및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내용 및 운영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본다.

1. 초등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에 설치되어져 있는 대학에서의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와 관련된 수업들을 분석하고, 예비초등 교사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정인지를 파악해본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일반 대학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초등교육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10개의 교육대학교와 3개의 일반대학 안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교육과이다.

<표 Ⅲ-1> 전국 초등 교원양성 교육기관

학교명	홈페이지 주소
서울교육대학교	http://www.snue.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home.ewha.ac.kr/~eee
경인교육대학교	http://www.ginue.ac.kr
춘천교육대학교	http://www.cnue.ac.kr
청주교육대학교	https://www.cje.ac.kr
한국교원대학교	http://primary.knue.ac.kr/smain.html
공주교육대학교	https://www.gjue.ac.kr
전주교육대학교	http://www.jnue.kr
광주교육대학교	http://www.gnue.ac.kr
대구교육대학교	http://www.dnue.ac.kr
진주교육대학교	http://www.cue.ac.kr
부산교육대학교	http://www.bnue.ac.kr
제주대학교	http://www.sara.jejunu.ac.kr

2) 연구 방법 및 절차

현재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일반 대학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초등교육과의 음악관련 교육과정 및 음악 실기와 관련된 수업들을 분석하기 위해 각 대학의 요람 및 홈페이지,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2014년 2월 18일~2014년 5월 30일) 수집된 자료들은 각 대학의 2014학년도 교과과정편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내용은 각 대학의 음악교육과 관련된 과목으로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음악 실기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중심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과목별 학점 및 시수, 수업영역, 이수 학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장기범 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2004학년도 교육대학교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교과목 표준안'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음악 심화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와 관련된 수업을 알아보기 위해 2014학년도 기준 각 대학별 학교 요람 및 홈페이지, 인터넷 상의 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하였다. 대학의 정규수업 이외에 학과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수업과 학교에서 설정한 수업시수 이외의 수업시간은 이번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에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와 수업의 운영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과 조교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파악하려고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수 및 강사, 각 학교 학과 조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 26명과 각 대학의 학과 조교 13명이다.

<표Ⅲ-2> 설문 연구 대상

학교명	구 분	설문지 배포수	학교명	구 분	설문지 배포수
경인 교대	교수 및 강사	2	전주 교대	교수 및 강사	2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공주 교대	교수 및 강사	2	제주 교대	교수 및 강사	2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광주 교대	교수 및 강사	2	진주 교대	교수 및 강사	2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대구 교대	교수 및 강사	1	청주 교대	교수 및 강사	3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부산 교대	교수 및 강사	2	춘천 교대	교수 및 강사	2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서울 교대	교수 및 강사	3	한국 교원대	교수 및 강사	2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
이화 교대	교수 및 강사	1	총 (13학교)	교수 및 강사	26
	학과 조교	1		학과 조교	13

2) 연구 방법 및 절차

현재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학교별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문항으로는 과목의 개설여부, 과목의 명칭, 수업 영역, 학점 및 이수, 수강인원, 수업에 필요한 악기 등으로 나누어진 10문항과 수업 이수기간에 관한 인식조사, 수강인원에 관한 인식조사, 수업의 운영 및 형태파악 및 인식조사, 학생들의 수준 파악 및 방법에 관한 인식조사, 사용교재 및 중점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으로 수업에 관한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인식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나누어진 19문항으로 개발하여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2014년 7월 4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현재 교육대학교의 음악교육 관련 교수 및 강사 6명을 만나 수정 및 보완 방법 등을 제시받았으며, 통계학과 교수를 통해 설문지의 문항 및 통계, 분석 가능여부 등 설문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 제작된 최종 설문지를 본 연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항목별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문항 번호와 문항수이다.

<표Ⅲ-3> 설문지의 구성 내용

항 목	연구문제	문항번호	문항수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과목의 개설여부 과목의 명칭 수업 영역 학점 및 이수 수강 인원 수업에 필요한 악기	1. 2 3 4 5, 6, 8, 9, 16, 17	2 1 1 3 3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	수업 이수기간에 관한 인식 수강 인원에 관한 인식 수업의 운영 및 형태파악 및 인식 수준 파악 방법 및 인식 사용 교재 및 중점내용 평가 방법 및 평가 내용	7 10 11, 12, 13, 14, 15 18, 19, 19-1 20, 20-1 21, 22, 23, 23-1	5 2 3 2 4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	24 25 26	1 1 1
총 계			총 29문항

이 외에도 담당교수 및 강사들의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중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의 내용, 수업 평가 내용, 졸업 시 피아노 실기평가,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에서는 5단계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4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과 음악교육 관련 학과 조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배포는 2014년 11월 4일~2014년 11월 11일, 설문지 수거는 2014년 11월 4일~2014년 11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이 기간 외에 배포 및 수거된 설문지에 관해서는 본 연구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은 본 연구의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현황이다.

<표Ⅲ-4>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현황

대상 및 방법	배포방법	배포 수	수거방법	수거 수	수거율(%)
학과 조교 (총 13부)	직접배포	5부	직접수거	5부	100%
	간접배포	8부	간접수거	8부	
교수 및 강사 (총 26부)	직접배포	13부	직접수거	13부	88.46%
	간접배포	13부	간접배포	10부	

45) 1932년 Resis Likert에 의해 개발된 리커트 척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 즉, 생각,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의 한 유형이다.

Ⅵ. 연구 결과

1. 전국 초등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1) 초등 음악교육의 중요성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선택한 일부 학생들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음악 교과에 대해 심도 있고, 전문 교사로 양성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음악에 관한 내용을 학습시키고, 이들이 초등 교사가 되어서는 학생들에게 다시 지도하게 된다. 이처럼 초등학교 음악 교육은 학급담임 또는 음악 교과만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전담 교사들이 음악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음악관련 교육과정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아이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감각이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초등학교 음악교육을 통해 인격형성과 인간교육의 출발로서 조화로운 인간성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러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를 양성할 때에 제대로 교육시켜 배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예비 초등 교사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국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세분화되어져 있다. 교양과정은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과정으로 초등 교사로서의 인격과 폭 넓은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초등 전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과정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음악 교육의 경우 음악의 기초 영역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공과정은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전문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음악 교육의 경우에는 교과교육과 교과실기로 나누어 구성되어져 있다. 심화과정은 특정 교과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과목별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로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공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학교의 운영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되어지기도 한다. 또한 심화과정은 다른 과목에 비해 17~24학점을 더 교육받고 있으며, 음악을 선택한 경우에는 음악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가. 각 대학별 음악관련 교양과정

<표Ⅳ-1> 각 대학별 음악관련 교양과정 (2014학년도 기준)

학교	영역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학년
경인교대	예술 및 체육	선택	한국음악 이야기, 서양음악 이야기	2(2)	1학년
	자유선택	선택	합창, 기악합주, 국악합주	2(2)	·
공주교대	·	·	·	·	·
광주교대	예·체능	선택	음악의 이해	2(2)	·
대구교대	예술	선택	음악의 이해 (양악·국악)	2(2)	1학년
부산교대	예·체능	선택	음악의 이해	2(2)	1학년
서울교대	생활과학·예술	선택	국악의 이해, 서양음악의 이해	2(2)	1학년
	자유선택		음악의 즐거움, 음악사와 감상		2학년
이화여대	표현과 예술	선택	서양음악의 이해	3(3)	
전주교대	·	·	·	·	·
제주대	음악영역 (예술과 건강)	택 1	생활음악과 현대문화, 사물놀이	2(2)	4학년
진주교대	·	·	·	·	·
청주교대	예술	선택	음악의 이해	2(2)	1학년
춘천교대	체육·예술	필수	음악의 기초이론	2(2)	1학년
한국교원대	스포츠와 예술	선택	생활 속의 클래식, 음악 감상1,2, 국악감상, 음악과 생활	2(2)	·
			교양합창	1(2)	

각 대학별 교양과정 중 음악관련 교과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6개 대학(경인교대·광주교대·부산교대·제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예술과 체육' 영역으로, 대구교대에서는 '문학과 예술', 서울교대에서는 '생활과학과 예술', 청주교대에서는 '예술 영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개설되어져 있다. 또한 경인교대와 서울교대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자유선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개설되어진 교과들은 대부분 '음악의 이해', '국악의 이해', '음악의 기초이론', '음악과 생활', '생활 속의 클래식' 등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특이하게도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합창', '기악합주', '국악합주'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고,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교양합창'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또한 교양과정으로 음악관련 과목들은 대부분 한 두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는데 반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5과목,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4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다른 학교들에 비해 다양한 음악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져 있어 학생들이 음악 교육에 있어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춘천교대의 경우에는 음악관련 교양과정을 필수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개 대학(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이화여대·제주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은 모두 선택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었다. 또한 전국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에서는 음악관련 교양과정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3개 대학(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에서는 음악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지 않았다.

교양과정은 모든 예비 초등 교사들이 교육받아야 하는 초등학교 기초 영역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음악관련 교육과정 역시 음악에 관한 기초 영

역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예비 초등 교사들은 교양과목을 통해 음악에 관한 기초 영역을 교육받게 된다. 이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악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직접 음악 교과를 맡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기초 영역을 교육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음악관련 교양과정으로 음악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서 초등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

<표Ⅳ-2>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 (2014학년도 기준)

학교명	영역	구분	교과목 명	학점 (시수)	이수 학년
경인 교대	교과교육	필수	음악과 교육Ⅰ	2	2학년
			음악과 교육Ⅱ	2	3학년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Ⅰ-1	1(2)	1학년
			음악실기Ⅰ-2	1(2)	2학년
공주 교대	교과교육학	필수	초등음악과 교육론	2	3학년
			초등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2	3학년
	예 · 체능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1(2)	1학년
			음악실기Ⅱ	1(2)	1학년
		선택	음악실기Ⅲ	3	4학년
광주 교대	교과교육	필수	초등음악(교수법Ⅱ, Ⅰ,교재연구)	4(6)	2,3 학년
			음악과교육(Ⅰ-음악교육론,Ⅱ-음악이론 및 피아노,Ⅲ-성악,국악)	3(6)	2,3 학년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2(3)	1학년

대구교대	기본	필수	초등음악교육론	2(3)	2학년
	교과교육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	리코더합주	2	4학년
	예·체능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Ⅱ	2(4)	1학년
부산교대	교과교육	필수	초등음악 교수법 Ⅰ	1(2)	2학년
			초등음악 교수법 Ⅱ	1(2)	3학년
			초등음악 교재연구	2	3학년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 Ⅰ	1(2)	
			음악실기 Ⅱ	1(2)	
서울교대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	필수	초등음악이론	1(2)	2학년
			가창교육론	1	2학년
			기악교육론	1	3학년
			초등음악지도법	1	4학년
	실기·시험	필수	초등기악실기	1(2)	2학년
			초등음악실기		3학년
이화여대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필수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2	2학년
전주교대	교과교육	필수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2학년
	교과전담교육		음악실기	2(4)	1학년
제주대	교과교육학	필수	초등음악과교육Ⅰ	2(3)	2학년
			초등음악과교육Ⅱ	3(3)	3학년
	예·체능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2(4)	1학년
		선택	음악실기Ⅱ	1(2)	2학년
진주교대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필수	초등음악	2(2)	1학년
			음악과 교재연구		3학년
			국악이론 교육	1(1)	3학년
	실기교육	필수	국악실기 지도법	1(2)	2학년
			피아노 반주법		1학년
		선택	음악실기(음악 실기 교육) (미술 체육 중中 택1)	2(4)	4학년
청주교대	각과교육	필수	음악교육Ⅰ	2(3)	2학년
			음악교육Ⅱ	2	3학년
	공통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2	1학년
		선택	음악실기Ⅱ	2	2학년
	자유선택	선택	타 심화과정 中 1과목 선택	2	
춘천교대	교과교육학 이론	필수	초등음악교육Ⅰ	2	2학년
	교과교육학 실제		초등음악교육Ⅱ	2	3학년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1(2)	1학년
			음악실기Ⅱ	2(3)	2학년
	특별활동·학교재량 특별활동	선택	학교행사음악	1(2)	4학년

		학교 재량		특기적성음악활동		
한국 교원대	기본		필수	초등음악교육론	2	3학년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1(2)	1학년
				음악실기Ⅱ	1(2)	1학년
				음악실기Ⅲ	1(2)	2학년
				음악 실기 심화	1(2)	2학년
	교과교육		필수	초등음악교육방법론	3	3학년

위의 <표Ⅳ-2>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교육과 교과실기로 나누어 개설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기본,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학교재량, 자유선택, 교과전담 교육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다. 전공과정에서의 교과교육은 일반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기본 원리, 내용 및 방법, 교재연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실기 영역으로는 피아노, 국악, 현악, 관악 등 각 대학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개설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교과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음악과 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음악교육론', '초등음악', '음악교육'이라는 과목명을 사용해 개설되어져 있었는데, 반면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초등음악 교수법' 으로 개설되어져 있었다. 실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음악실기', '초등기악실기', '초등음악실기' 명칭을 사용해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특이하게도 대구교대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리코더 합주'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고,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국악실기 지도법'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또한 춘천교대의 경우에는 특별활동·학교재량 영역으로 '학교행사음악' 과 '특기적성 음악활동'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에서의 학점 및 시수를 살펴보면, 교과 실기영역에 있어서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음악 실기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업시간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실기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Ⅰ, Ⅱ로 나누어 1학점씩 각각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수업시수는 2시간으로 학점에 비해 수업시간이 높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음악실기Ⅲ'까지 개설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음악 실기과목에 대한 비중을 전국 대학 중 가장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각 대학별 음악관련 전공과정에서 전국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 음악교육 및 실기' 단 한 과목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음악관련 교양과정에서도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서양 음악의 이해' 단 한 과목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주교대의 경우에도 '음악교과 교육론'과 '음악실기' 두 과목만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 실정에 맞추어 교과목을 개설하였기 때문이며, 음악관련 전공과목만 6과목까지 개설되어져 있는 서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교과과정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각 대학별 음악관련 심화과정

<표Ⅳ-3> 각 대학별 음악관련 심화과정 (2014학년도 기준)

학교명	구분	교과목 명	학점 (시수)	이수 학년
경인 교대	필수	한국음악이론	2	2학년
		합주지도법	2(3)	
		합창지도법	2(3)	3학년
		서양음악이론	3(3)	
		음악교육론	2	4학년
		음악교재분석 및 지도법	2(3)	
		한국음악 교육연구	2	
	선택	국악기악, 기악 中 택 1	2	3학년
		국악가창, 성악 中 택 1		
		멀티미디어와 음악교육,감상지도법 中택1	2	4학년
공주 교대	필수	국악Ⅰ	1(2)	2학년
		가창	1	
		피아노Ⅰ	1(2)	
		피아노Ⅱ	1	
		기악Ⅰ	1	
		국악Ⅱ	1	3학년
		합주Ⅰ	1(2)	
		합창Ⅰ	1	
		가창Ⅱ	1	4학년
		기악Ⅱ	1	
		초등음악 학습 자료연구	1(2)	
		음악과 교수법	2	
		음악창작 지도방법	1	
		합창Ⅱ	1(2)	
	선택	국악합주Ⅰ	1	2학년
		건반악기Ⅰ	1	
		합창연주Ⅰ	1	
		관현악합주Ⅰ	1	
		국악합주Ⅱ,건반악기Ⅱ 中 택1	2	3학년
		합창연주Ⅱ,관현악합주Ⅱ 中 택1	2	4학년
광주 교대	필수	피아노실기	3(4)	2학년
		합창	3	3학년

		합주	3	
		국악이론	2	4학년
		음악 감상 지도법	2	
		성악실기	3(4)	
		작곡실기	3(4)	
		국악실기	2(3)	
대구 교대	필수	시창 및 청음	2	3학년
		기악지도법	2	
		피아노실기Ⅰ	2	
		국악장단지도법	2	
		피아노실기Ⅱ	2	4학년
		음악교육론	2	
		합창	2	
		국악교수법	3	
		합주	2	
		창작지도법	2	
부산 교대	필수	합창Ⅰ	2	2학년
		기악실기	1	
		합창Ⅱ	2	
		기악실기Ⅱ	1	
		국악실기	2	
		피아노실기	2	3학년
		합주Ⅰ	2	
		음악개론	2	
		합주Ⅱ	2	
		작곡실기	2	4학년 비고
		음악지도법	2	
		성악실기	2	
서울 교대	필수	합주지도법	2	2학년
		초등음악교육론	2	
		통합음악이론	2	3학년
		합창지도법	2	
		국악지도법	2	4학년
	선택	오르프 교육론, 디지털 피아노, 피아노실기中 택 1	2	2학년
		국악실기, 성악실기, 피아노실기 中 택 1	2	3학년
		음악교육심리, 기악합주, 음악사 中 택 1	2	
	자유 선택	음악교육매체	2	4학년
		고급음악실기지도	2	
이화 여대	·	·	·	·

전주교대	필수	반주지도법	3	2학년
		음악지도법	3	3학년
		한국전통음악교수법	3	
		가창지도법	3	4학년
	선택	국악합주, 합주·합창 中 택1	3	4학년
		음악교육론,창작지도,초등음악지휘 中택2	6	
제주대	필수	고급음악이론	3	2학년
		합주지도와 음악공학	3	
		국악기악지도법	3	3학년
		창작지도법	3	
		가창·감상지도법	3	4학년
		음악교육론심화	3	
		현장음악교육의 이해	3	
		국악가창 및 감상지도법	3	
진주교대	필수	관현악지도법	3	2학년
		국악실기	2	3학년
		음악실기지도법	3	
		국악교육론	3	4학년
	선택	합창지도법, 가창지도법 中 택 1	3	4학년
		합창 지휘법, 리코더 지도법 中 택 1	3	
		음악창작 지도법, 건반화성 中 택 1	3	
청주교대	필수	기악실기(심화1)	1(2)	3학년
		창작실기(심화1)	1	
		합창지도실기	2	
		피아노실기(심화1)	2(3)	
		음악교육세미나(심화1)	1	
		기악실기(심화2)(2)	2	4학년
		피아노실기(심화2)	2(3)	
		성악실기	1	
		창작실기(심화2)	1	
		음악교육세미나(심화1)	2	
		국악실기	1	
		국악지도법	2	
춘천교대	필수	작곡지도법	2	2학년
		감상지도법	2	
		가창 및 합주지도법	3	3학년
		가창반주법	2	
		국악교수법	3	4학년
		기악 및 합주 지도법	3	
		음악교수법	3	
		국악가창 및 국악기 지도법	3	

한국 교원대	전공과목 중 21점 필수 이수	기초국악개론	3	1~2학년
		통합음악실기	2	
		기초음악이론	3	3학년
		앙상블	2(3)	
		음악전공실기Ⅰ	1	
		음악이론심화	2	
		서양음악사	1	
		음악전공실기Ⅱ	1	
		초등음악교재연구	3	4학년
		동요작곡법	2(3)	
		합주지도법	2	
		합창지도법	2	
		국악지도법	1	
		감상지도법	2	
		컴퓨터와 음악 교육	1	

위의 표<Ⅳ-3>은 각 대학별 음악관련 심화과정으로 다른 교과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교과에 대한 전문 교사로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화 교육과정은 대학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전문교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과목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관련 심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대학마다 대부분 음악 이론과 음악 실기 중심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는 일반 음악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전공 교육과정 편성과 비슷하게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특히 일반대학의 음악전공 교육과정을 축소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경인교대의 경우에는 총 14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장기범 외가 제시한 '심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교과목 표준안'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근접하게 개설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교대, 한국교원대학교의 심화 교육과정 역시 전국 초등교원 양성대학 중 장기범 외가 제시한

‘심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교과목 표준안’에 가장 근접한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교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경인교대, 서울교대, 대구교대의 경우 총 10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총 15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또한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악 실기위주의 과목들로 개설되어져 있었는데, 반면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각 대학별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20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전국 초등교원 양성 대학 중 가장 많은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음악 심화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육에 관한 교과목이 단 한과목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일반 교육과정으로 단 두 과목만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사를 배출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초등학교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골고루 개설해 예비 초등 교사들이 전 교과에 대해 기본지식을 익히고, 초등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대학마다 학교 운영상황에 맞추어 교과목이 편성되다보니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교과목 편성이라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획일적인 교과목 편성이 아니라 예비 교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앞에서 살펴 본 장기범 외가 제시한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교과목 표준안’ 과 같이 학생의 수준 및 능력,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강좌는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장기범 외가 제시한 교육대학교 음악 심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2014학년도 각 대학별 음악 심화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음악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분석은 음악 심화과정의 학점 수 및 시수, 졸업학점 대비 심화과정의 비율, 교과목 명칭, 교과목에 근거한 교과목의 성격분류, 선택과 필수의 비중 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음악 심화과정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범 외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음악 심화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 아래 <표Ⅳ-4>의 장기범 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200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도’ 와 <표Ⅳ-5>의 ‘201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도’를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제시된 표에서는 음악 심화과정의 학점 및 시수, 졸업 학점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음악 심화과정의 학점이 졸업학점 대비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장기범 외의 연구에서는 10개의 교육대학교 만을 파악하였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모든 대학을 조사하였다. 이에 ‘200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다

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분포도에 관한 표이다.

<표Ⅳ-4> 2004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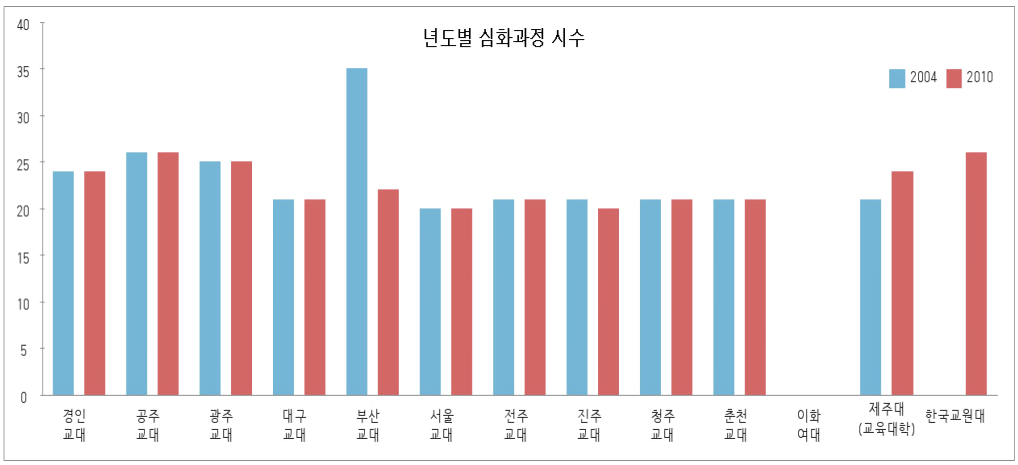
학교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	평균
학점	21	21	21	21	30	20	21	21	18	21	21	21.45
시수	24	26	25	21	35	20	21	21	21	21	21	23.27
졸업학점	144	146	145	145	145	140	145	145	145	141	140	143.73
심화(%)	14.6	14.4	14.5	14.5	20.7	14.3	14.5	14.5	12.4	14.9	15.0	14.94

<표Ⅳ-5> 2014년도 음악 심화과정 학점 및 시수 분포

학교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평균
학점	21	21	21	21	22	20	21	20	18	21	24	28	21.5
시수	24	26	25	21	22	20	21	20	21	21	24	26	22.58
졸업학점	144	147	145	145	134	140	145	145	146	140	150	140	143.41
심화(%)	14.6	14.3	14.5	14.5	16.4	14.3	14.5	13.8	12.3	15	16	14.6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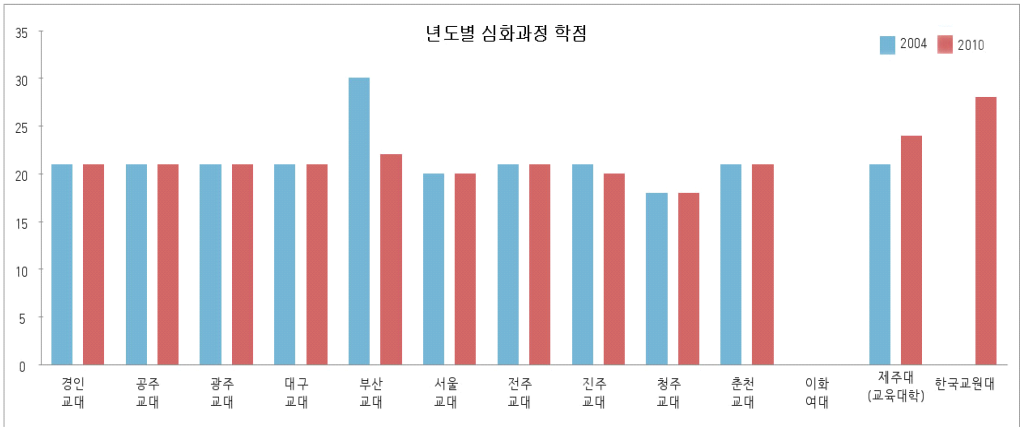
다음은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장기범 외가 제시한 2004학년도 심화 교육과정의 시수와 본 연구자가 조사한 2014학년도의 심화 교육과정의 시수에 관한 년도별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 음악 심화 교육과정 시수 비교 그래프



다음은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장기범 외가 제시한 2004학년도 심화 교육과정의 학점과 본 연구자가 조사한 2014학년도 심화 교육과정 학점에 관한 년도별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2] 음악 심화 교육과정 학점 비교 그래프



‘2004학년도 음악 심화 교육과정’과 ‘2014학년도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각 대학별 이수학점과 시수, 졸업학점 대비 비율을 비교해보면, 2004학년도에는 최소 18학점(청주교대)에서 최대 30학점(부산교대)까지 학점 분포가 학교에 따라 크게 나타났으며, 음악 심화과정의 평균학점은 21.45학점으로 평균시수는 23.27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에는 최소 18학점(청주교대)에서 최대 28학점(한국교원대)로 나타났으며, 평균학점은 21.5학점으로, 평균시수는 22.58시간으로 나타나 이는 2004학년도에 비해 학점은 0.5학점 늘어나고 시수는 0.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은 10년 전에 비해 학점은 늘고 수업시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4학년도 기준 수업시수와 학점수가 같은 대학으로는 6개 대학이었으며,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춘천교대가 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5개 대학은 학점과 수업시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4학년도에는 수업 시수와 학점을 같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로 총 7개 대학이었으며, 나머지 8개 대학에서는 학점에 비해 수업 시수를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론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수와 수업시수를 같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반면 실기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수에 비해 수업시수를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2014학년도 심화 교육과정의 학점 수가 총 이수학점 대비 15%이상인 곳은 부산교대, 제주대로 나타났으며, 13개 대학 중 11개 대학에서는 모두 총 이수학점 대비 15%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학년도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이수시

켰던 것에 반해 2014학년도에는 22학점으로 축소·운영되어지고 있었으며,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2004학년도에 21학점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4년도에는 20학점으로 축소·운영되어지고 있었다.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학점을 21학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시수에 있어서는 2004학년도에 26시간에서 2014학년도에 21시간으로 낮추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음악 심화 교육과정이 축소·운영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라. 각 대학별 일반 교육과정 음악 실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일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과 '전공과정'을 하나로 묶은 교육과정으로 교과에 관한 기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다음 <표Ⅳ-6>는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음악 실기에 관한 교과목들만을 재분류 한 것이다.

<표Ⅳ-6> 음악 실기에 관한 일반 교육과정

학교명	영역	구분	교과목명	해당악기	학점	시수
경인교대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Ⅰ-1	피아노	1	2
			음악실기Ⅱ-2	국악	1	2
공주교대	예체능실기	필수	음악실기 Ⅰ	피아노, 성악	1	2
			음악실기Ⅱ	피아노,성악,국악	1	2
		선택	음악실기 Ⅲ	성악,국악,기악 (이론,리코더)	3	3
광주교대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피아노,국악,성악	2	4
			음악과 교육	피아노	1	2
대구교대	예체능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피아노,성악	2	4
			음악실기Ⅱ	피아노,성악	2	4
부산교대	교과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피아노,시창	1	2
			음악실기Ⅱ	피아노,시창	1	2
서울교대	실기 · 시험	필수	초등기악실기	피아노,리코더	1	2
			초등음악실기	피아노,성악	1	2
이화여대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필수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피아노,성악, 리코더,국악 등	2	2
전주교대	교과점담교육	필수	음악실기	피아노,성악,플룻	2	4
제주대	예체능실기	필수	음악실기Ⅰ-1	피아노,가창	2	4
			음악실기Ⅰ-2	장구, 기악합주	2	4
		선택	음악실기Ⅱ	가야금	1	2
진주교대	실기교육	필수	국악 실기 지도법	장구,단소, 피리,소금	1	2
			피아노 반주법	피아노	1	2
		선택	음악실기(미술, 체육 중 택1)	피아노,리코더	2	4
청주교대	공통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피아노	2	2
		선택	음악실기Ⅱ	피아노	2	2
춘천교대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국악 (단소,소금,장구)	1	2
		필수	음악실기Ⅱ	피아노,리코더	2	3
한국교원대	교과교육 및 실기	필수	음악실기Ⅰ	피아노	1	2
			음악실기Ⅱ	피아노	1	2
			음악실기Ⅲ	피아노,국악	1	2
			음악 실기 심화	피아노,국악	1	2

각 대학별 일반 교육과정에서 음악 실기에 관한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악 실기' 라는 교과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피아노 실기', '국악 실기', '성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음악 실기에 관한 교과목을 필수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주교대의 경우에는 '음악 실기 Ⅱ'로, 공주교대의 경우에는 '음악 실기 Ⅲ', 진주교대의 경우에는 '음악 실기'(미술, 체육 중 택1)로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모두 선택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표 <Ⅳ-6>에서의 해당악기는 대학의 교과과정 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본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악기별 실기 영역만을 조사해 놓은 것이다.(2014년 11월 10일~2014년 11월 11일)

악기별 실기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 실기에 있어서 대부분 학점에 비해 수업 시수를 높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예·체능 과목의 경우 이론교육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함께해야 하는데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 전 학생들의 실기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수업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지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수 및 강사들을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아노 실기의 경우 개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의 수업이 효과적이겠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처럼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 수업은 클래스 피

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방식이다. 또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관해서는 본문 Ⅱ-2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피아노의 활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통해 피아노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 레슨에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피아노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피아노 교수 방법이다. 특히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일대일 피아노 레슨에서 얻을 수 없는 동료 간의 선의의 경쟁심 및 사회성,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룹을 통한 앙상블 연주,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피아노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이다.

또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은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해서 아니면 피아노를 가르친 경험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클래스 피아노 교수방법에 따라 수업이 운영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해당 교과에 대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확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각 대학별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피아노 교육에 관한 교과목

본문 Ⅱ-1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장기범 외가 제시한 '심화 교육과정 교과목 표준안'을 살펴보면, 교과기본능력으로 '피아노'와

‘ICT활용 음악교육’이 포함시키고 있으며, 교과내용학 기악영역에서도 ‘초등 기악실기 및 지도법’, ‘악기론’이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초등 교사에게 있어서 피아노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초등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에 있어서 피아노를 활용한 ‘초견 능력’ 및 ‘반주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각 대학별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과목만을 살펴보았으며 내용은 다음 <표Ⅳ-7>와 같다.

<표Ⅳ-7>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과목

학교명	구분	이수 학년	교과목명	학점	시수
경인 교대	선택	3	기악(피아노)	2	2
공주 교대	필수	2	피아노Ⅰ	1	2
	필수	2	피아노Ⅱ	1	1
	선택	2	건반악기Ⅰ	1	1
	선택	3	건반악기Ⅱ	2	2
광주 교대	필수	3	피아노실기	3	4
대구 교대	필수	3	피아노실기Ⅰ	2	2
	필수		피아노실기Ⅱ	2	2
부산 교대	필수	3	피아노실기	2	2
서울 교대	선택	2	디지털피아노, 피아노실기 中 택 1	1	2
	선택	3	국악, 성악, 피아노 실기 中 택 1	1	2
이화 여대	·	·	·	·	·
전주 교대	필수	2	반주지도법	3	3

제주대	·	·	·	·	·
진주교대	선택	4	건반화성	1	3
청주교대	필수	3	피아노실기(심화 1)	2	3
	필수	4	피아노실기(심화 2)	2	3
춘천교대	필수	3	가창 반주법	2	2
한국교원대	필수	1-2	통합음악실기 (피아노, 성악, 클래식기타)	2	2
	필수	3	음악전공실기Ⅰ (피아노, 성악, 클래식기타)	1	1
	필수	3	음악전공실기Ⅱ (피아노, 성악, 클래식기타)	1	1

음악 심화 교육과정 중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교과목들은 ‘기악’, ‘건반 악기’, ‘피아노 실기’, ‘건반 화성’, ‘가창 반주법’, ‘음악 전공실기’ 등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되고 있었다. 경인교대, 서울교대,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필수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기악’, ‘음악 실기’ 등의 교과명을 사용해 피아노 이외에 다른 악기에 관해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음악 심화 교육과정에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전공별 클래스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초등 교과서 제재 곡에 맞춰 피아노 반주능력 향상, 교과서 중심의 제재 곡 익히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피아노 테크닉 향상, 피아노 연주곡 등 피아노 연주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제주대학교와 이화여자

대학교의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의 '음악실기 Ⅰ'에서 피아노 실기 수업을 필수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이하게도 가야금과 장구 등을 음악실기 영역으로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유일하게 음악교육에 관한 과목을 '서양음악의 이해',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두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그 중 '초등 음악교육 및 실기' 과목에서 한 학기에 1~2회 정도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피아노를 다루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의 피아노 시범연주 등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임에도 불구하고 초등음악 교육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교육학과 조교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며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이화여자대학교에는 피아노 실기와 관련 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나요?

조 교: 아니요. 피아노 수업은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과목에서 한 학기에 1~2회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당교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자: 그렇다면 한 학기에 1~2회는 어떤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　교: 이화여대는 초등교육과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가 수업 중에 필요할 때는 키보드나 디지털 피아노를 강의실로 옮겨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피아노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조　교: 네. 피아노는 담당교수님만 수업시간에 시범연주로 보여주시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자: 학생들은 언제 어디에서 피아노 실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조　교: 학교에 피아노 연습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외부에서 연습하고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수업시간은 대부분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수업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초등 교원을 양성함에 있어서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과 운영상 교과목을 최소화시켜 대학의 편의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있어서 많은 허술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함에 있어서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13개의 대학들은 모두 '초등교육' 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각 대학마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초등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 교과목을 모두 교육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음악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과목에서도 최소한의 교과목에 대한 표준안이 제

시되어 초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짧은 수업시간 안에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 또한 장기범 외가 제시한 교과목 표준안처럼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초등 음악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교과목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각 대학마다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교과목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 표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에 관한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도 음악 실기과목의 경우 대부분 학점에 비해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아노 실기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수업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지도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의 수업보다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 유형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운영형태 및 내용 등이 파악되어야 하고 수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수 및 강사진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클래스 피아노 수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음악교육의 경우 이론과 실기능력을 고루 갖춘 초등 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화 된 교육과정안 편성과 현직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등 초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재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초등 음악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각 대학별 음악 교육과정의 학점 및 시수 비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음악 실기 수업에 있어서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높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상 초등학교 전 교과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한된 학점으로 많은 과목을 교육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에서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높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한 것이다.

<표Ⅳ-8> 음악 교육과정의 학점 및 시수

학교명	일반 교육과정	학점(시수)	심화 교육과정	학점(시수)
경인교대	음악실기 Ⅰ-1	1(2)	합주지도법	2(3)
	음악실기 Ⅱ-2	1(2)	합창지도법	2(3)
			음악 교재분석 및 지도법	2(3)
공주교대	음악실기 Ⅰ	1(2)	피아노 Ⅰ	1(2)
			국악 Ⅰ	1(2)
	음악실기 Ⅱ	1(2)	합주 Ⅰ	1(2)
			합창 Ⅰ	1(2)
			초등음악 학습 자료연구	1(2)
광주교대	음악실기 Ⅰ	2(4)	피아노 실기	3(4)
			성악 실기	3(4)
	음악과 교육	1(2)	작곡 실기	3(4)
			국악 실기	2(3)

대구교대	음악실기 Ⅰ	2(4)	·	·
	음악실기 Ⅱ	2(4)		
부산교대	음악실기 Ⅰ	1(2)	·	·
	음악실기 Ⅱ	1(2)		
서울교대	초등기악실기	1(2)	·	·
	초등음악실기	1(2)		
이화여대	·	·	·	·
전주교대	음악실기	2(4)	·	·
제주대	음악실기 Ⅰ-1	2(4)	·	·
	음악실기 Ⅰ-2	2(4)		
	음악실기 Ⅱ	1(2)		
진주교대	국악실기지도법	1(2)	·	·
	피아노 반주법	1(2)		
	음악실기	2(4)		
청주교대	·	·	기악실기 (심화Ⅰ)	1(2)
			피아노실기 (심화Ⅰ)	2(3)
			피아노실기 (심화Ⅱ)	2(3)
춘천교대	음악실기 Ⅰ	1(2)	·	·
	음악실기 Ⅱ	2(3)		
한국 교원대	음악실기 Ⅰ	1(2)	앙상블	2(3)
	음악실기 Ⅱ	1(2)		
	음악실기 Ⅲ	1(2)	동요작곡법	2(3)
	음악실기심화	1(2)		

위의 표 <Ⅳ-8>에서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와 청주교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대학에서 학점에 비해 수업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운영할 때에 학점과 수업 시수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점은 1학점으로, 수업시수는 2시간으로 운영되거나, 학점은 2학점으로, 수업시수는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학점에 비해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앙상블', '동요 작곡법'의 과목을 학점은 2학점으로 운영하면서 이론 1시간, 실기 2시간

으로 총 3시간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인교대의 '음악교재분석 및 지도법'과 공주교대의 '초등음악 학습 자료연구' 수업은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은 아니었지만 수업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전 교과목을 다루다보니 제한된 학점으로는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점은 낮게, 수업 시수는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수업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 각 대학별 피아노 실기 교육과정 개설현황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또한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이 최대 6~7과목 개설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단 한 과목만 개설되어져 있는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대학마다 과목의 개설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져 있는 대학의 현황이다.

<표Ⅳ-9> 피아노 실기 교육과정 개설현황

학교명	일반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개설 과목수
경인교대	음악실기 Ⅰ-1	기악(피아노)	2
공주교대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	피아노Ⅰ, 피아노Ⅱ, 건반악기Ⅰ, 건반악기Ⅱ	6
광주교대	음악실기Ⅰ	피아노 실기	2
대구교대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	피아노실기Ⅰ, 피아노실기Ⅱ	4
부산교대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	피아노실기	3
서울교대	초등기악실기, 초등음악실기	피아노실기(2학년), 피아노실기(3학년)	4
이화여대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	1
전주교대	음악실기	반주지도법	2
제주대	음악실기Ⅰ-1	·	1
진주교대	피아노반주법, 음악실기	건반화성	3
청주교대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	피아노실기(심화1), 피아노실기(심화2)	4
춘천교대	음악실기Ⅱ	가창반주법	2
한국 교원대	음악실기Ⅰ, 음악실기Ⅱ, 음악실기Ⅲ, 음악실기심화	통합음악실기, 음악전공실기Ⅰ, 음악전공실기Ⅱ	7

위의 표 <Ⅳ-9>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모든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육학 영역으로 개설되어져 있는 '초등음악교육 및 실기' 수업에 피아노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대학처럼 피아노 실기 수업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경우 8학기 중 한 학기만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국악분야에 치우친 과목이 개설되어

져 있었다. 반면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과정이 가장 많이 개설된 학교로는 한국교원대학교 7과목, 공주교대 6과목이 각각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각 학교마다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수업이 개설되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프리번의 주장처럼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 학습이 최소 3~4년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표 <Ⅳ-9>에서 살펴본 것처럼 1~2학기 정도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어 프리번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피아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어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피아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이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 없이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실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이 장에서는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들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가? 수업에 필요한 악기는 얼마나 구비되어져 있는가?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파악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관한 기초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과정에 관해 파악하였다.(2014년 11월 4일~11월 30일)

수업에 관한 운영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학과 조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13부(직접배포 5부. 간접배포-이메일 전송 8부)와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설문지 26부(직접배포 13부, 간접배포-이메일 전송 13부)를 각각 배포하였으며, 학과 조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13부(직접수거 5부, 간접수거-이메일 전송 8부)는 100% 수거를 완료하였으며,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총 26부 중 23부(직접수거 13부, 간접수거-이메일 전송 10부)를 수거하여 84.46%의 수거율을 보였다.

이에 전국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학과 조교를 통해 전국 13개 대학의 수업의 기본 현황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조사는 전국 13개 대학 중 대구교육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대학의 담당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지의 항목별 유형은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10문항과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 19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9문항으로 만들어졌다. 설문지의 문항 중에서 교재선택, 평가방법,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5단계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설문지의 항목별 연구문제이다.

<표Ⅳ-10> 설문지 항목별 연구문제

항 목	연구문제	항 목	연구문제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과목개설여부 과목의 명칭 수업 영역 학점 및 이수 수강 인원 수업에 필요한 악기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	수업의 이수기간 수강 인원 수업의 운영 및 형태 수준 파악 교재 선택 평가 방법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

1) 각 학교별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학교 기초조사를 파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각 대학별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13개 대학을 100%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대학별 학과 조교를 대상으로 수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교육과정 26강좌와 심화 교육과정 20강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지의 항목별 문항은 과목의 개설여부, 과목의 명칭, 과목별 수업영역, 학점 및 이수학기,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수업에 필요한 악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 과목의 개설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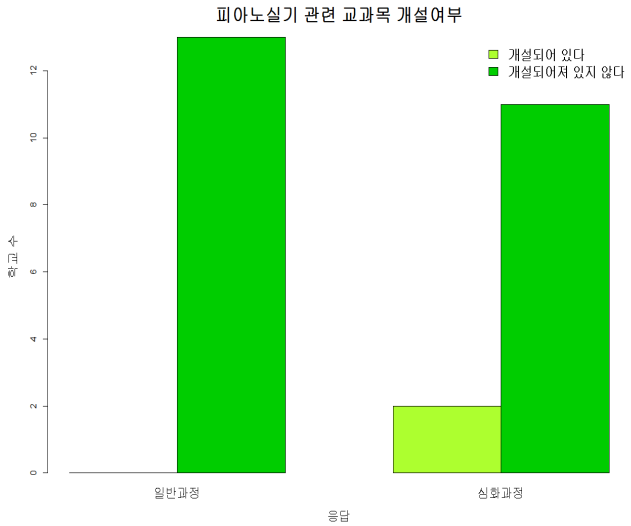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이 얼마나 개설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13개 대학 모두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들이 개설되어져 있었고,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1개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들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100%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었고,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78.6%가 개설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등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피아노 교육에 관한 실기 능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실기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비 교사들이 피아노 실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피아노 실기 교육에 관한 수업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피아노 실기와 관련해 학교별 과목 개설 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표Ⅳ-11> 과목 개설 여부

문 항	구 분	응 답	학교 수(%)
Q1	일반 과정	개설되어 있지 않다	0(0)
		개설되어져 있다	13(100)
	심화 과정	개설되어 있지 않다	2(15.3)
		개설되어져 있다	11(84.7)

다음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과목의 개설 여부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Ⅳ-3] 과목 개설 여부 그래프

나. 개설 과목의 수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이 얼마나 개설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각각 5학교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세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1학교로 나타났고, 네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학교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한 과목만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5학교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두 과목만 개설 된 학교는 4학교로 나타났고, 세 과목과 네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는 학교는 각각 1학교씩 나타났다. 또한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2학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에 관한 기초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이며 피아노 교육은 이러한 기초학습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2학교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교수진들 중에 피아노전공 교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 관련 수업이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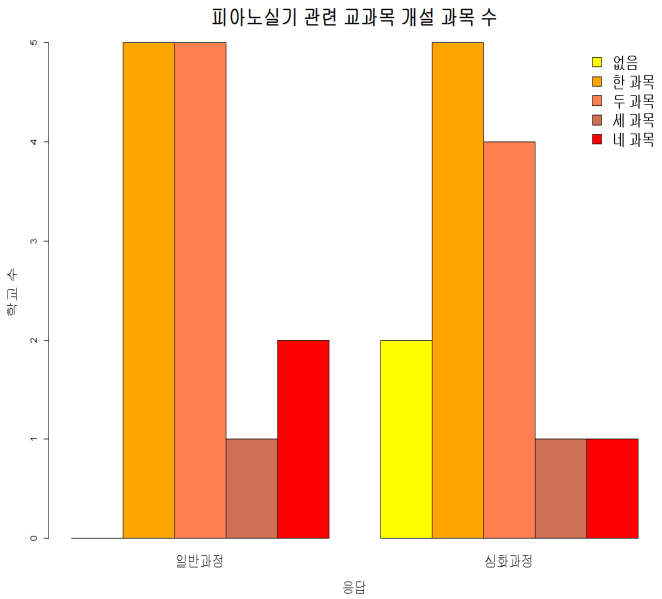
따라서 초등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다룰 줄 알아야하며, 피아노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먼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개설하고 교수진의 전공여부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기보다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꼭 갖춰야 할 기본 능

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Ⅳ-12> 개설 과목 수

문 항	구 분	응 답	강좌 수	학교 수(%)
Q2	일반 과정	없음	0	0(0)
		한 과목	5	5(38.5)
		두 과목	10	5(38.5)
		세 과목	3	1(7.7)
		네 과목	8	2(15.3)
	심화 과정	없음	0	2(15.3)
		한 과목	5	5(38.5)
		두 과목	8	4(30.8)
		세 과목	3	1(7.7)
		네 과목	4	1(7.7)

다음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개설 과목 수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Ⅳ-4] 개설 과목 수 비교 그래프

다. 과목별 영역

일반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누어 개설되어져 있는데 간혹 학과의 운영상 선택 과목이지만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과목별 영역을 선택영역, 필수영역, 선택이지만 필수영역으로 수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과목별 영역을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26개의 과목 중 23개의 강좌는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고, 3개의 강좌는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총

20개의 강좌 중 13개의 강좌가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고, 6개의 강좌는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1개의 강좌는 선택이지만 필수로 이수하도록 개설되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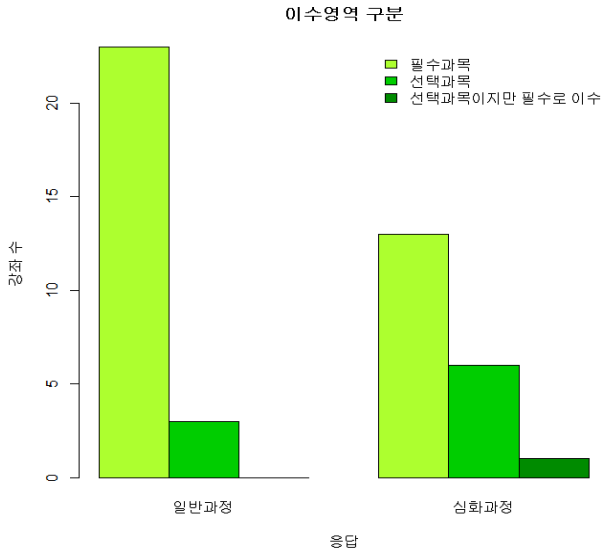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피아노 실기에 관한 과목들이 대부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초등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실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문 Ⅱ-1에서 살펴 본 장기범 외의 연구에서도 교과기본교육으로 '피아노'를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인 동시에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표Ⅳ-13> 과목별 영역

문 항	구 분	응 답	강좌 수
Q4	일반 과정	필수과목	23
		선택과목	3
		선택과목이지만 필수로 이수	0
	심화 과정	필수과목	13
		선택과목	6
		선택과목이지만 필수로 이수	1

다음은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과목별 영역을 필수영역, 선택영역, 선택이지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영역별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5] 과목별 영역 비교 그래프

라. 이수학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학점 및 수업 시수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8개의 강좌에서 1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8개의 강좌에서는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1개의 강좌에서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개설된 강좌들 중 2학점으로 개설된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의 강좌에서는 1학점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2개의 강좌에서는 3학점으로 수업이 운영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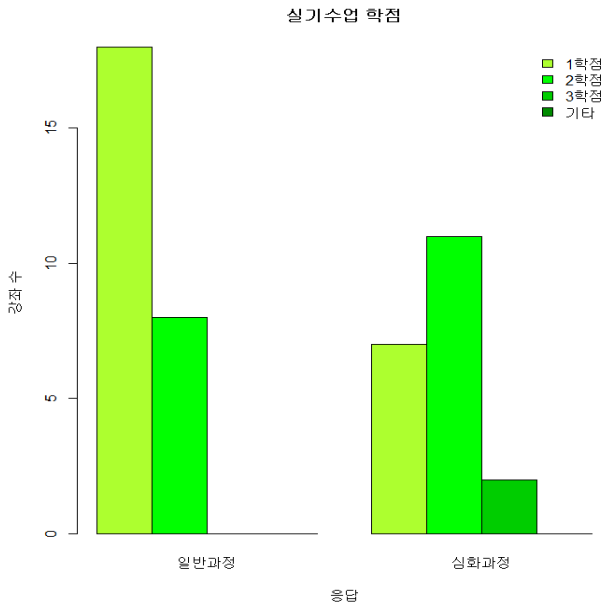
특히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의 기초 영역들을 모두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예비 초등 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문 Ⅳ-1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음악 교육에 관한 수업들은 대부분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구성되고, 수업 시간은 2~3시간으로 늘려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았으며, 특히 실기 영역에 있어서는 학점에 비해 수업 시수를 늘여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수업을 개설할 때에 학점은 1학점으로 개설하고, 수업 지도 시간은 2시간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 학점 수도 높게 개설되어져 있었다. 또한 일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심화 교육과정에서도 학점을 2학점으로 개설되어져 놓고, 수업 시수는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4> 이수 학점

문 항	구 분	응 답	강좌 수
Q5	일반 과정	1학점	18
		2학점	8
		3학점	0
		기 타	0
	심화 과정	1학점	7
		2학점	11
		3학점	2
		기 타	0

다음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학점을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조사해 놓은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6] 이수 학점에 관한 비교 그래프

마. 이수 학기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각 대학별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몇 학기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31강좌 중에서 한 학기만 개설되어져 있으며 모두 필수 영역으로 개설되어져 있는 강좌가 30강좌였으며, 단 1강좌만이 선택 영역으로 개설되어져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 학기만 개설되어져 있는 강좌가 19강좌로 모두 필수 영역으로 개설되어져 있었고, 4강좌는 선택 영역으로 한 학기동안 이수 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은 대부분 1학기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처럼 대학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교육받고 실제 초등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을 지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입학할 때에 따로 실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는 피아노를 전혀 배우지도 않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졸업 후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할 때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음악 수업을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피아노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교육 기간이 한 학기로 나타난 것은 초등교사 양성에 있어서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별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과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소 1과목에서 최대 7과목까지 개설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아노 수업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수준별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설되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상황이나 교수의 전공여부에 따라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과목 수도 많이 개설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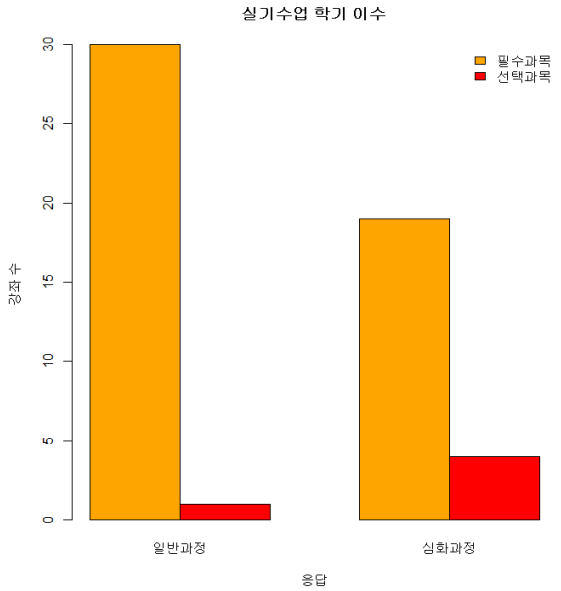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들이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등 교사는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피아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

이 선택적으로 개인별 수준에 맞추어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표Ⅳ-15> 이수 학기

문 항	구 분	응 답	학기 수	강좌 수
Q6	일반 과정	필수과목	1학기	30
		선택과목	1학기	1
	심화 과정	필수과목	1학기	19
		선택과목	1학기	4

다음은 피아노 실기과목에 관한 이수학기가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 놓은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7] 이수학기에 관한 비교 그래프

바.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강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강의를 개설하기 전 강의가 개설되기 위한 인원을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설강인원이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기 위한 설강인원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4개의 강좌에서 11~15명을 설강인원으로 정해 놓았고, 14개의 강좌에서 26~30명으로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으며, 7개의 강좌에서는 30명 이상으로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2개의 강좌에서 26명~30명으로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고, 3개의 강좌에서는 30명 이상의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으며, 2개의 강좌에서는 10명 이하의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다. 또한 2개의 강좌에서 11~15명 정도의 설강인원을 정해 놓았고, 1개의 강좌에서는 16명~20명을 수업이 개설되기 위한 설강인원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설강인원을 26~30명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모든 예비 교사들에게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클래스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음악 실기의 경우 다른 예·체능 교과와는 다르게 실기에 관한 수업 운영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체육이나 미술의 경우에는 한 교실에서 동시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가 가능하겠지만 음악 실기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처럼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학생

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강좌를 개설할 때에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을 많은 인원이 수업 받도록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업에 관한 수강 인원에 있어서도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1개의 강좌에서 26~30명으로 수강인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개의 강좌에서 30명 이상의 수강인원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4개의 강좌에서는 11~15명의 수강인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3개의 강좌에서는 21~25명의 수강인원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6~30명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12개의 강좌로 가장 많았으며, 30명 이상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는 3개의 강좌가 있었으며, 11~15명 또는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경우는 2개의 강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수강인원은 평균 25~30명으로 나타났으며, 설강인원과 수강인원을 비교해 볼 때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 25~30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피아노 실기 수업을 운영할 경우 일대일 개인 레슨을 통한 개인별 수준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장 효과적인 수업 운영방법이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이나 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관한 교수 방법 및 유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에 맞추어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클래스 피아노 유형으로 수업을 운영해야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대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며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골고루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수강인원 수에 맞추어 수업을 운영할 경우 피아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신감도 잃고 더 나아가 교사가 되어서는 음악 수업을 운영할 때에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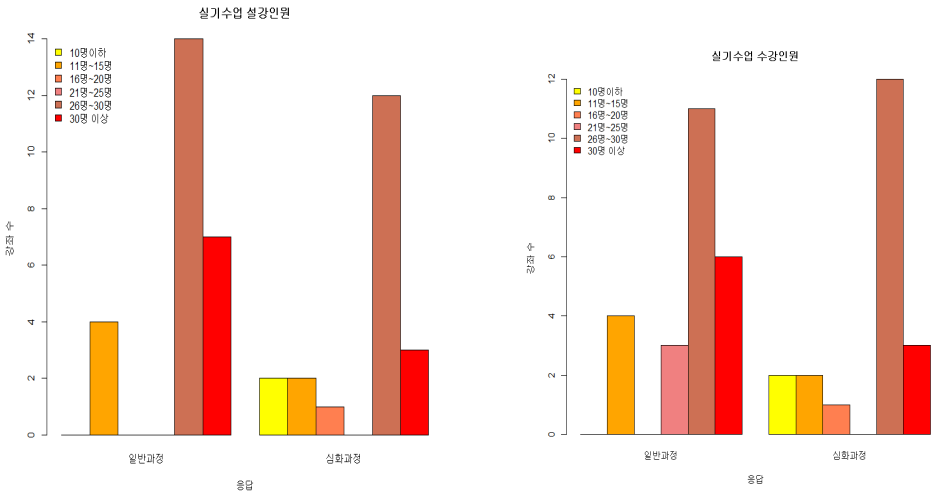
따라서 30명 이상의 인원수에 맞추어진 수업이 개설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피아노 실기에 관한 실력이 향상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설강할 때에 음악 실기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원으로 개설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수업이 개설되고 운영되어야만 한다. 특히 다른 예·체능 교과와는 다르게 음악 실기 과목은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수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설강인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학교 당국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초등 교사에게 필요한 피아노 실기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표Ⅳ-16>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문 항	구 분	인 원	설강 강좌 수(%) Q8	수강 강좌 수(%) Q9
Q8	일반 과정	10명 이하	0(0)	0(0)
		11명 ~ 15명	4(16.0)	4(16.7)
		16명 ~ 20명	0(0)	0(0)
		21명 ~ 25명	0(0)	3(12.5)
Q9		26명 ~ 30명	14(56.0)	11(45.8)
		30명 이상	7(28.0)	6(25.0)

심화 과정	10명 이하	2(10.0)	2(10.0)
	11명 ~ 15명	2(10.0)	2(10.0)
	16명 ~ 20명	1(5.0)	1(5.0)
	21명 ~ 25명	0(0)	0(0)
	26명 ~ 30명	12(60.0)	12(60.0)
	30명 이상	3(15.0)	3(15.0)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에 관해 설강인원과 수강인원을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설강인원을 26~30명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10명 이하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강좌는 심화 교육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Ⅳ-8]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비교 그래프

사. 그룹 및 분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그룹 및 분반 수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2개의 강좌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고, 3개의 강좌에서는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하고 있었으며, 5개의 강좌에서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0개의 강좌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고, 4개의 강좌에서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7개의 강좌에서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 강좌의 수강생이 25~30명으로 수업이 구성되며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들이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건반의 소리를 피아노로만 설정해 놓고 피아노 건반을 익히기 위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를 만나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 방법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담당 교수는 “디지털 피아노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아노 소리에만 맞춰 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 고 하였다.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특성상 많은 인원을 한 장소에서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데 어쿠스틱 피아노를 구비해 수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어쿠스틱 피아노 보다 크기가 작고 소

리 조절이 되며 같은 건반악기라는 점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반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어쿠스틱 피아노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디지털 피아노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필요할 경우 업라이트 피아노나 그랜드 피아노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을 운영할 때에 사용하는 악기는 디지털 피아노이지만 디지털 피아노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수업을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한 건반을 활용한 반주 패턴만 익히는 것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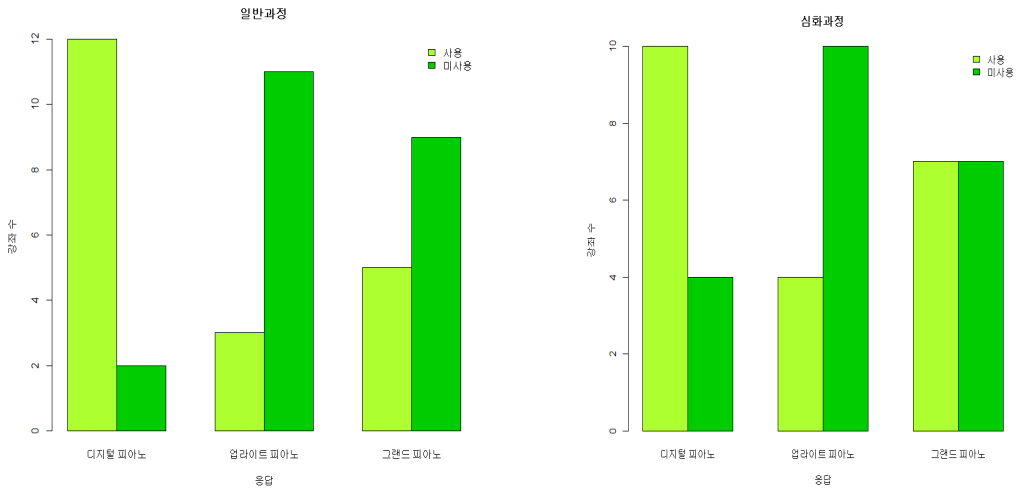
디지털 피아노는 우선 건반의 수가 76개의 건반에서부터 88개의 건반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어쿠스틱 피아노처럼 해머가 현을 때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음을 칩에 내장시켜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원리로 만들어진 전자악기이다. 또한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등의 음색 이외에도 효과음까지 다양한 음색이 내장되어져 있으며,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음색을 혼합시킬 수도 있으며. 건반을 분리시켜 앙상블 연주도 가능하다. 다양한 리듬이 내장되어져 있으며, 국제 표준 440피치로 항상 조율이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조율기능을 사용해 음높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사실 디지털 피아노는 제조한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회사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기능들은 내장되어져 있다. 따라서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음악 수업은 동료와의 앙상블 연주로 음악적 성취감을 느낄 뿐 아니라 리듬감, 화성진행, 셈여림 등 음악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많은 인원의 학생들을 동시에 피아노 랩이 설치되어져 있는 교실이서 수업을 할 경우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디지털 피아노 악기 사용방법을 익히고,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표Ⅳ-17> 그룹 및 분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수

문 항	구 분	악기 명	응 답	강좌 수(%)
Q16	일반 과정	디지털 피아노	사용함	12(83.7)
			사용하지 않음	2(14.3)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함	3(21.4)
			사용하지 않음	11(78.6)
		그랜드 피아노	사용함	5(35.7)
			사용하지 않음	9(64.3)
	심화 과정	디지털 피아노	사용함	10(71.4)
			사용하지 않음	4(28.6)
		업라이트 피아노	사용함	4(28.6)
			사용하지 않음	10(71.4)
		그랜드 피아노	사용함	7(50.0)
			사용하지 않음	7(50.0)

다음은 그룹 및 분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해 놓은 그래프이다.



[그림Ⅳ-9]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비교 그래프

아. 일대일 개인레슨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대부분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클래스 피아노 수업으로 운영하다고 한 명씩 지도하는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악기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으로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1개의 강좌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11개의 강좌에서도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7개의 강좌에서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4개의 강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고, 9개의 강좌에서는 업라이트 피아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개의 강좌에서는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그랜드 피아노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할 경우에는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하는 수업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어쿠스틱 피아노보다는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쿠스틱 피아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의실에 어쿠스틱 피아노가 따로 구비되어져 있지 않았으며 수업 시간에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는 강의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피아노 운반 및 학생들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동료가 레슨 받는 시간동안 과제나 실습 등에 관한 연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개인당 지도 받는 시간도 일인당 5분 이하로 짧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어쿠스틱 피아노가 있는 강의실로 이동하기보다는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받고 있었지만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방법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업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경우에는 단체, 부분, 개인으로 나누어 수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강의실에 디지털 피아노와 어쿠스틱 피아노가 함께 구비되어져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표Ⅳ-18> 일대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악기 수

문 항	구 분	응 답	강좌 수
Q17	일반 과정	디지털 피아노	11
		업라이트 피아노	7
		그랜드 피아노	11
	심화 과정	디지털 피아노	6
		업라이트 피아노	9
		그랜드 피아노	14

자. 악기 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아노 실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의실에서는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학에 구비되어져 있는 건반 악기들을 살펴보았는데, 대학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피아노가 한 교실에 최대 46대가 구비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강의실에 건반 악기가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는 평균 28,6대의 디지털 피아노가 강의실에 구비되어져 있었다.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에

는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11개로 파악되었으며,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에는 2개의 학교에 2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구비되어져 있었고, 3개의 학교에서는 각각 1대씩 구비되어져 있었으며, 그랜드 피아노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9곳이나 되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디지털 피아노를 많이 활용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27~28대의 디지털 피아노가 강의실에 구비되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40대 이상의 디지털 피아노를 배치하기 위해서 디지털 피아노를 자체 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디지털 피아노의 건반 개수를 55~58개로 자체 제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교육받을 때에 피아노 건반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 교과서 제재 곡을 중심으로 반주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반 수로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아노의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고려하지 않아 비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수업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피아노를 자체 제작하여 많은 수의 디지털 피아노를 한 교실에 구비할 수 있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개인별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교육받는 것은 비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때에 수강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이연경이 제시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적정 인원인 12~25명 정도가 적절한 수강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디

지털 피아노도 한 교실 안에 12~25대로 구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며, 어쿠스틱 피아노도 최소 1대는 한 교실에 디지털 피아노와 함께 구비되어져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표Ⅳ-19> 강의실에 구비되어져 있는 악기 수

구 분	악기 명	악기 수	학교 수	평균 악기 수
일반 과정	디지털 피아노	0대	2개	28.6대
		1대	1개	
		20대	1개	
		32대	1개	
		34대	1개	
		35대	1개	
		36대	2개	
		40대	4개	
		46대	1개	
	업라이트 피아노	0대	11개	0.3대
		1대	2개	
		2대	1개	
	그랜드 피아노	0대	9개	0.5대
		1대	3개	
		2대	2개	
심화 과정	디지털 피아노	0대	4개	27.1대
		34대	1개	
		35대	2개	
		36대	2개	
		40대	4개	
		44대	1개	
	업라이트 피아노	0대	10개	0.4대
		1대	3개	
		2대	1개	
	그랜드 피아노	0대	7개	0.7대
		1대	4개	
		2대	3개	

2)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수업에 관한 인식조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며, 설문지의 문항은 수업의 이수기간, 수강인원, 수업의 운영 및 형태, 학생들의 수준 파악여부, 교재선택, 평가방법, 수강 학생들의 음악적 향상도, 수업의 문제점, 수업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가. 수업 이수 학기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을 졸업한 후 실제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어느 정도 교육받아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최소 2학기 정도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학기나 4학기 정도는 수업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8.2%로 나타났고, 8학기 정도는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2학기 동안 교육받으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기 동안 교육받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22.7%로 나타났다. 또한 8학기 동안 꾸준히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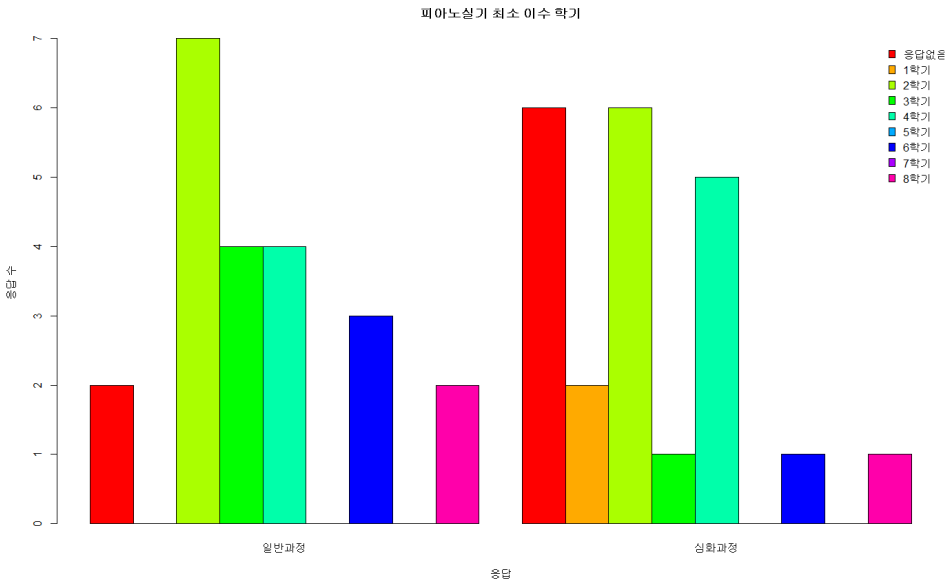
본 연구자가 설문지에 대한 답변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교수 및 강사들은 어느 정도를 교육받아야 적당한지에 관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수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할 때에 따로 피아노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피아노 실기가 수준급인 학생부터 피아노 자체를 만져보지도 못한 학생들까지 수준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동시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러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적당한지에 관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별 수준차이를 고려한 수업기간 및 수업내용,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아노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2학기 동안 교육을 받아 실제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반면 수준급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이수기간을 결정해주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분반수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사를 위한 피아노 실기 교육은 프리번의 주장처럼 최소 3~4년 동안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대학에서 이러한 운영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준별 분반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실제 초등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질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Ⅳ-20>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수업 이수학기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7	일반 과정	응답 없음	2(9.1)
		1학기	0(0)
		2학기	7(31.8)
		3학기	4(18.2)
		4학기	4(18.2)
		5학기	0(0)
		6학기	3(13.6)
		7학기	0(0)
		8학기	2(9.1)
	심화 과정	응답 없음	6(27.3)
		1학기	2(9.1)
		2학기	6(27.3)
		3학기	1(4.5)
		4학기	5(22.7)
		5학기	0(0)
		6학기	1(4.5)
		7학기	0(0)
		8학기	1(4.5)

다음은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예비 초등 교사들이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을 최소 몇 학기 동안 이수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관한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0] 적절한 수업의 이수학기 비교 그래프

나. 수업에 적절한 수강인원

피아노 실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실기 수업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수강인원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최소 6명~10명이 가장 적절한 수강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2.1%로 16명이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6~20명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강인원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11명으로 28.9%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6명~1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11명으로 57.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명~5명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5명으로 26.3%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기 위해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가 개설될 때에 한 강의마다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이 너무 많아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아노 교육의 경우 피아노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기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설강인원 및 수강인원 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학교 및 해당 교육기관에 건의하였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초등 교육에 필요한 전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모두 이수시켜야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설강인원을 소수의 인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담당 교수들도 이러한 내용을 해당기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이것이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담당 교수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소 수강인원을 본인이 생각하는 인원보다 높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5명 이하가 가장 적절한 수강인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심도있고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수강인원이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 적게 설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었으며,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의 생각도 개인레슨을 통한 지도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수업 운영방법이라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5명 이하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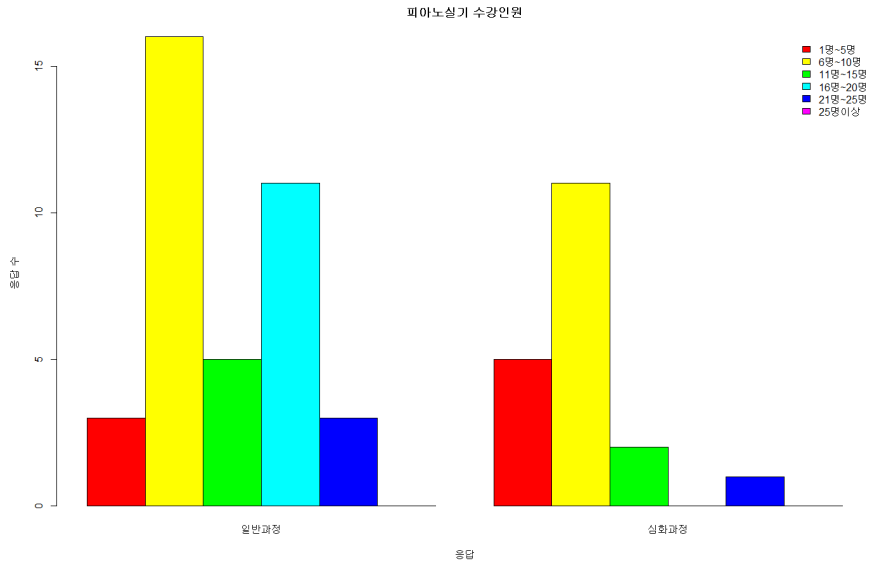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경우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인 25명이 넘지 않게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피아노 실기 수업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수준별 분반수업 또는 개인레슨 방식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안이며, 수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강 인원이라고 생각한다.

<표Ⅳ-21> 수업에 적절한 수강 인원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10	일반	1명 ~ 5명	3(7.9)
		6명 ~ 10명	16(42.1)
		11명 ~ 15명	5(13.2)
		16명 ~ 20명	11(28.9)
		21명 ~ 25명	3(7.9)
		25명 이상	0(0)
	심화	1명 ~ 5명	5(26.3)
		6명 ~ 10명	11(57.9)
		11명 ~ 15명	2(10.5)
		16명 ~ 20명	0(0)
		21명 ~ 25명	1(5.3)
		25명 이상	0(0)

다음은 현재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강 인원을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Ⅳ-11] 수업에 적절한 수강 인원 비교 그래프

다. 수업의 운영 및 형태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45.9%가 전체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원수에 따른 분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21.6%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34.8%가 전체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준별 그룹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26.1%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그룹 피아노 레슨과 일대일 개인 레슨을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피아노 수준이 높은 학생과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한 팀으로 묶어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도 나타났다. 또한 한 달에 1회는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3회는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조사결과 나타났다.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인데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일대일 개인레슨으로 운영하거나 개인레슨 방식을 포함시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입학 할 때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이에 수강 신청한 모든 수강생을 한꺼번에 수업하기 보다는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수준별 그룹 수업 또는 분반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인원수에 따라 담당 교수가 직접 나눈 분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21.6%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 및 강사들이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별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원수에만 맞추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수업의 운영 형태를 잘못 파악하고 전체 학생들을 동시에 피아노를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수업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일대일 수업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대부분 피아노 연주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수업 운영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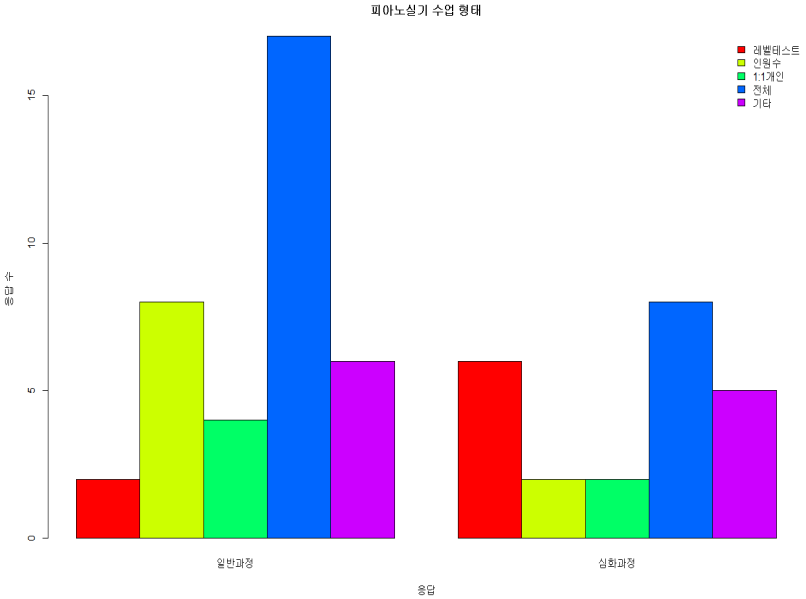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스승으로부터 교육받은 방식 그대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연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이들이 교육받아 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수업시작 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준별 그룹으로 나누어 분반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된다면 예비 초등 교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 교육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Ⅳ-22> 수업의 운영 및 형태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11	일반 과정	수준별 그룹수업	2(5.4)
		인원수에 따라 나눈 분반수업	8(21.6)
		1:1 개인 레슨	4(10.8)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17(45.9)
		기타	6(16.2)
	심화 과정	수준별 그룹수업	6(26.1)
		인원수에 따라 나눈 분반수업	2(8.7)
		1:1 개인 레슨	2(8.7)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8(34.8)
		기타	5(21.7)

다음은 수업의 운영 및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놓은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2] 수업의 운영 및 형태에 따른 비교 그래프

라. 그룹 수업에 따른 수강 인원

그룹 및 분반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 할 경우 한 그룹의 인원은 최소 몇 명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수강 인원은 몇 명인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11명~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12강좌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명~10명으로 운영되는 강좌와 2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강좌가 각각 5강좌로 파악되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6명~10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57.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명~5명으로 운영되는 강좌가 21.4%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가 생각하는 수업의 적절한 수강 인원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6명~10명이 가장 적절한 수강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1명~15명으로 35.3%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5명이 가장 적절한 수강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명~10명의 수강인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5%로 나타났다.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들은 대부분 10명 이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강 인원을 10명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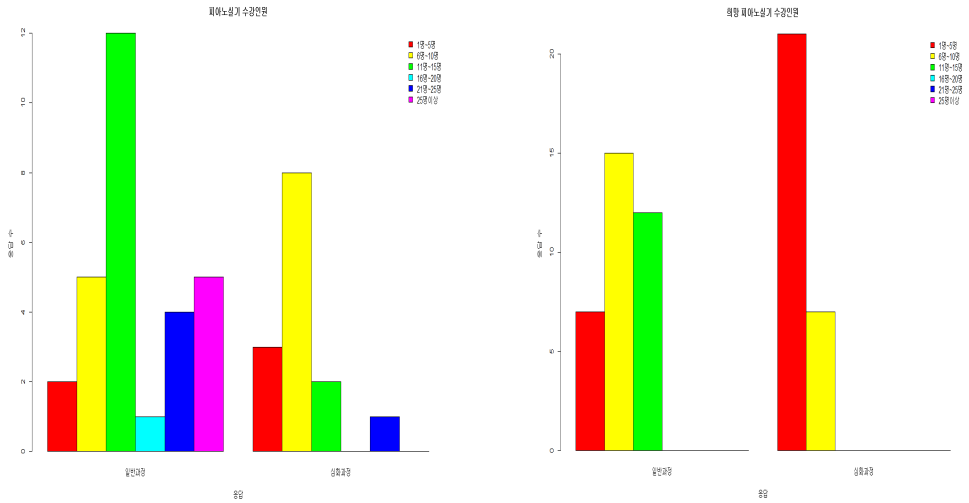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강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려면 먼저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수준별 분반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강 인원과 수강 인원에 대한 인원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23>그룹 수업에 따른 수강 인원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	
			수강 강좌수(%) Q 12	적정 강좌수(%) Q 13
Q12	일반 과정	1명 ~ 5명	2(6.9)	7(20.6)
		6명 ~ 10명	5(17.2)	15(44.1)
		11명 ~ 15명	12(41.4)	12(35.3)
		16명 ~ 20명	1(3.4)	0(0)

		21명 ~ 25명	4(13.8)	0(0)
		25명 이상	5(17.3)	0(0)
Q13	심화 과정	1명 ~ 5명	3(21.4)	12(75.0)
		6명 ~ 10명	8(57.1)	7(25.0)
		11명 ~ 15명	2(14.4)	0(0)
		16명 ~ 20명	0(0)	0(0)
		21명 ~ 25명	1(7.1)	0(0)
		25명 이상	0(0)	0(0)

다음은 피아노 실기 수업의 수강인원에 따른 강좌수와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수업에 대한 적정 인원수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나타낸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3] 그룹 수업에 따른 수강 인원 비교 그래프

마. 수업 지도 시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일대일 개인 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 학생 일인당 지도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인당 지도시간을 5분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는 31.8%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인당 지도시간을 5분 이하로 운영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 15분, 20분, 25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각각 12.5%씩 나타났다. 따라서 50%이상의 강좌에서 전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방식 중 일대일 개인 레슨으로 수업을 할 경우 학생 일인당 5분 이하로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일대일 개인레슨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 적절한 수업시간에 관해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대일 개인레슨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 대부분 10분 이하의 수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8.8%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0분 이하로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25분 이상으로 수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8.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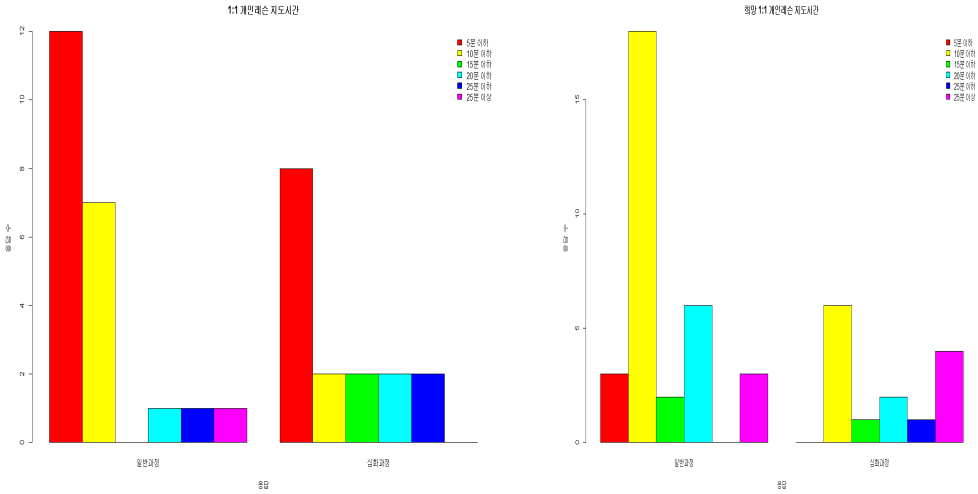
특히 피아노 실기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생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담당 교수 및 강사들도 수업에 적절한 지도시간을 짧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경우 일인당 지도시간을 대부분 5분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전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5분이하의 수업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짧은 수업시간을 활용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 및 강사가 적절한 수업시간을 배분해 효율성 있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피아노 실기 수업의 경우 피아노에 관한 다양한 연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수업 유형에 따른 수업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인원을 지도함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24> 수업 지도 시간

문 항	과 정	응 답	실제지도 시간(%) Q14	적절한 지도시간(%) Q15
Q14	일반 과정	5분 이하	12(54.5)	3(9.4)
		10분 이하	7(31.8)	18(56.3)
		15분 이하	0(0)	2(6.3)
		20분 이하	1(4.5)	6(18.8)
		25분 이하	1(4.5)	0(0)
		25분 이상	1(4.5)	3(9.4)
Q15	심화 과정	5분 이하	8(50.0)	0(0)
		10분 이하	2(12.5)	6(42.9)
		15분 이하	2(12.5)	1(7.1)
		20분 이하	2(12.5)	2(14.3)
		25분 이하	2(12.5)	1(7.1)
		25분 이상	0(0)	4(28.6)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 한 명당 실제 지도시간과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생각하는 학생 한 명당 적절한 지도시간을 나타낸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4] 수업 지도 시간에 관한 비교 그래프

바. 학생들의 수준 파악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 할 때에 피아노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피아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일반 교육과정

의 경우에는 88.9%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1.1%는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95%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는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피아노 수준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학기 초 학생들의 피아노 수준을 파악하였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반 과정교육의 경우에는 88.9%가 수준을 파악하였고, 11.1%가 수준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94.7%가 피아노 수준을 파악하였다고, 5.3%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학생들의 수준 파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지 않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피아노 실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자유롭게 곡을 정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 교수 및 강사가 수준별 곡을 제시해 파악하는 경우는 26.1%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곡을 정하여 수준을 파악하는 경우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질이 응답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는 경우가 18.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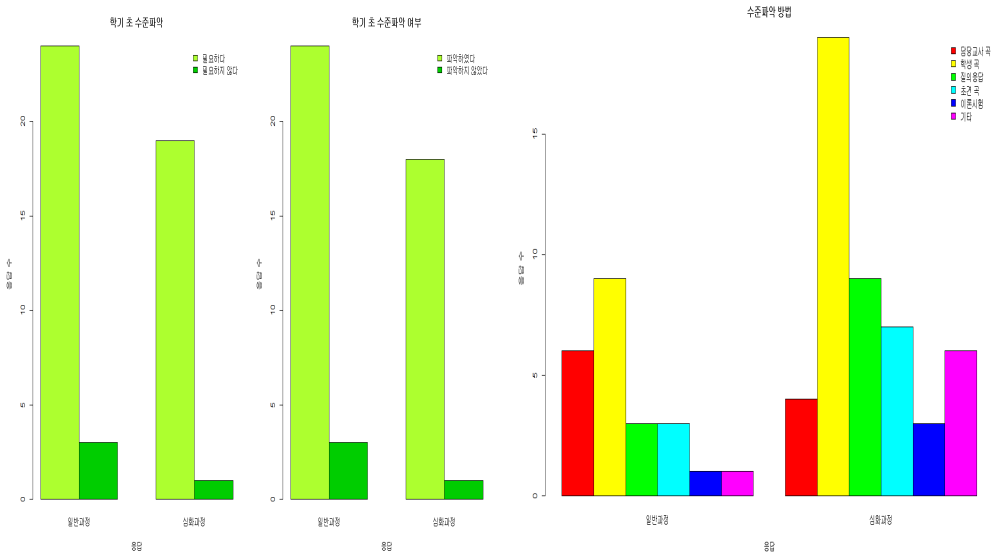
따라서 수업 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게 되면 수업을 운영할 때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은 수준을 파악하기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으며,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수 및 강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누어진 수준별 분반수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피아노 실기 평가를 통해 수준별 그룹 수업이나 분반 수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형태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수업의 방법이다.

<표Ⅳ-25> 학생들의 수준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18	일반 과정	필요하다	24(88.9)
		필요하지 않다	3(11.1)
	심화 과정	필요하다	19(95.0)
		필요하지 않다	1(5.0)
Q19	일반 과정	파악하였다	24(88.9)
		파악하지 않았다	3(11.1)
	심화 과정	파악하였다	18(94.7)
		파악하지 않았다	1(5.3)
Q19-1	일반 과정	담당교사가 수준별 곡을 제시하여 파악함	6(26.1)
		학생들이 자유롭게 곡을 정하여 파악함	9(39.1)
		교사와 학생이 질이 응답으로 파악함	3(13.1)
		교사가 초견 곡을 제시하여 파악함	3(13.1)
		교사가 출제한 이론 시험으로 파악함	1(4.3)
		기 타	1(4.3)
	심화 과정	담당교사가 수준별 곡을 제시하여 파악함	4(8.3)
		학생들이 자유롭게 곡을 정하여 파악함	19(39.6)
		교사와 학생이 질이 응답으로 파악함	9(18.8)
		교사가 초견 곡을 제시하여 파악함	7(14.6)
		교사가 출제한 이론 시험으로 파악함	3(6.3)
		기 타	6(12.5)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업 전 학생들의 수준 파악 여부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5] 학생들의 수준 파악여부에 따른 비교 그래프

사. 사용 교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교재에 관한 조사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42.9%가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3%가 교과서 제재 곡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2.7%는 반주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나타 또는 소나티

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타 사용 교재로는 피아노의 기초, 수준별로 나눠진 동요반주, 피아니스트들의 즐거운 합주 프로젝트(한영희·김경자 공저), 교사 및 지도자를 위한 피아노기초(이화여대 출판사) 등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교 교수가 곡을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27.6%로 나타났으며, 20.7%가 반주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소나타 또는 소나티네, 바이엘, 하농, 체르니 등 테크닉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독주곡 등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육에 관한 교재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한 '교사 및 지도자를 위한 피아노 기초'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 교수가 직접 발췌한 교재, 다양한 반주 교재, 교과서 제재 곡을 활용한 반주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재들 대부분 반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출판된 반주 교재의 특징에 관해 권수미는 "우선 작품마다 최소한의 반주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초견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염두에 두어 개발된 것이 아닌 단편적이고 기능적인 학습에 그칠 수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46]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출판된 교재들은 레퍼토리를 개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화성 이론을 연주에 적용시킨 건반화성 교재도 아니고, 앙상블 교재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모호한 유형의 교재가 '반주 교재'라고 표현

46) 권수미,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민족음악학회』 Vol. 39(2010), p. 324.

하고 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초견 능력'과 '반주 능력'을 키워 음악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하기에 적절한 교재들이 우리나라에는 출판되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출판되어진 교재들도 살펴보면 대부분 오른손에는 선율이 주어지고, 왼손에는 반복적인 패턴에 활용해 코드별로 움직여가는 유형이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반주 패턴이 문제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습관적이고 기능적으로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살펴본 학교 교수가 기존에 있는 곡들을 발췌해서 만든 교재들도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반주교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학습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맞추어 개발된 우리나라의 교재들은 대부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들이 출판되어져 있으며, 성인을 위한 교재로는 1991~1992년에 출판된 성진희, 성경희 저자의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클래스 피아노 1, 2' 권과 1998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에서 출판한 '개인 및 그룹지도를 위한 피아노 입문'과 1992~1993년도에 최성국 외가 출판한 '클래스 피아노'가 있다. 이러한 교재들은 모두 90년대에 출판된 교재들이고 초견, 화성, 조옮김, 창작연주, 테크닉, 앙상블 등을 교재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수준별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의 교재 중 클래스 피아노 교재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베스틴(J. W. Bestien)의 교재를 살펴보면, 이론, 테크닉, 독보, 조옮김, 화성학, 즉흥연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4학기에 걸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제시되어져 있다. 또한 미국의 음악대학에서 비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Keyboard Musicianship: Piano for adult Ⅰ, Ⅱ' 교재를 살펴보면, Ⅰ권에서는 클래스 피아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위한 기초 음악 이론부터 중급 수준의 연주 능력까지 난이도 체계에 맞추어 다루고 있다. Ⅱ권에서는 Ⅰ권 교재의 내용을 복습하고 레파토리를 교재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대표 음악가들의 작품들을 각 시대별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교재들은 초급 수준부터 중급, 고급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학습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과 교재들이 체계적인 구성에 맞추어 출판되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교재들은 대부분 학습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학습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도 빈약하고 난이도 또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교재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지도할 때에 병행교재를 사용해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지도하는 교사가 알아서 교재를 재구성하여 이를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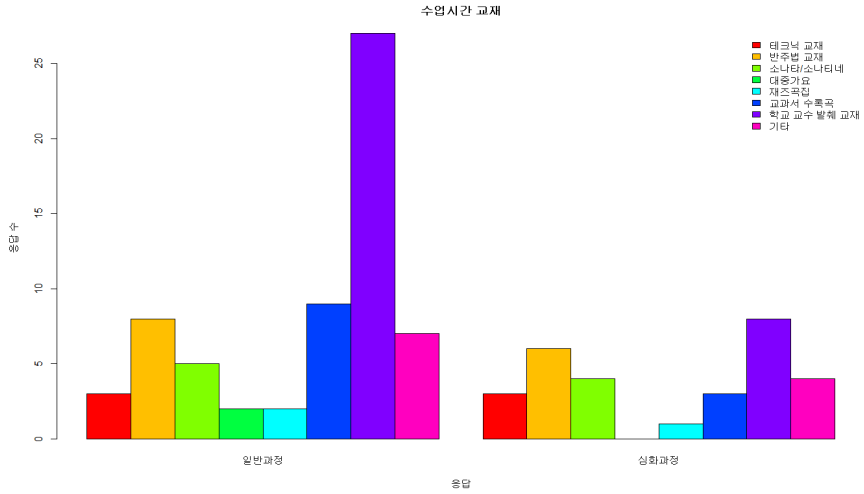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재 개발이 시급한데 특히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실기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 교사들을 위한 교재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반주 패턴만을 제시하는 교재가 아니라 예비 교사들의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재 개발과 건반 연주 기술을 향상,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초등학교 교과서의 제재 곡을 포함시키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관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26>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20	일반 과정	바이엘, 하농, 체르니 등(테크닉 교재)	3(4.8)
		반주법 교재	8(12.7)
		소나타 또는 소나티네	5(8.0)
		대중가요	2(3.2)
		재즈 곡집	2(3.2)
		교과서 수록곡	9(14.3)
		학교 교수가 곡을 발췌해서 만든 교재	27(42.9)
		기 타	7(11.1)
	심화 과정	바이엘, 하농, 체르니 등(테크닉 교재)	3(10.3)
		반주법 교재	6(20.7)
		소나타 또는 소나티네	4(13.8)
		대중가요	0(0)
		재즈 곡집	1(3.4)
		교과서 수록곡	3(10.3)
		학교 교수가 곡을 발췌해서 만든 교재	8(27.6)
		기 타	4(13.8)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를 살펴본 것이다.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 모두 학교 교수가 발췌한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 교재들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Ⅳ-16]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에 관한 비교 그래프

아. 교수가 발췌한 교재의 내용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는 초등 교과서에 실린 제재 곡이나 기타 초급 피아노 메소드 등에서 발췌한 연습곡들을 모아서 엮은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교수가 강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다른 교재의 연습곡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의 구성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교수가 발췌한 교재들의 내용으로는 45.5%가 반주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교재에 가장 많이 포함시켰으며, 31.8%가 초등교과서 제재 곡들을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초견 능력 향상과 전

조 및 건반화성, 피아노 앙상블 연주도 교재의 내용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31.8%가 반주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연주 레퍼토리 늘리기와 초견 능력 향상에 관해 22.7%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18.2%는 중급레퍼토리 늘리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전조 및 건반화성,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 즉흥연주 등을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담당 교수가 발췌한 교재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5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과목에 대한 기초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음악교과 역시 음악에 대한 기초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 역시 대부분 간단한 반주 능력을 키우고 초등교과서 중심의 제재 곡을 익히고 초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즉흥연주나 피아노 앙상블 연주, 중급테크닉 향상을 위한 내용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피아노 연주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연주 레퍼토리 늘리기,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중급 테크닉 향상, 반주능력 향상, 초등교과서 중심 제재 곡, 즉흥연주, 피아노 앙상블 연주 등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골고루 포함시켜져 있었다. 이처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재의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의해 차이를 두어 발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7> 학교 교수가 발췌한 교재의 내용

문항	구분	교재의 내용	Likert 응답 / Likert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Q 20 -1	일반 과정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0(0)	4(18.2)	2(9.1)	0(0)	2(9.1)	14(63.6)
		초견 능력 향상	3(13.6)	3(13.6)	2(9.1)	0(0)	1(4.5)	13(59.1)
		전조 및 건반화성	1(4.5)	4(18.2)	2(9.1)	0(0)	1(4.5)	14(63.6)
		중급 테크닉 향상	0(0)	2(9.1)	0(0)	1(4.5)	2(9.1)	17(77.3)
		반주능력 향상	10(45.5)	3(13.6)	0(0)	0(0)	0(0)	9(40.9)
		초등교과서 중심 재제곡	7(31.8)	5(22.7)	2(9.1)	0(0)	0(0)	8(36.4)
		즉흥연주	0(0)	1(4.5)	1(4.5)	0(0)	3(13.6)	17(77.3)
		피아노 앙상블 연주	1(4.5)	2(9.1)	0(0)	0(0)	3(13.6)	16(72.7)
		기 타	0(0)	0(0)	0(0)	0(0)	0(0)	0(0)
	심화 과정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5(22.7)	1(4.5)	0(0)	0(0)	0(0)	16(72.7)
		초견 능력 향상	5(22.7)	2(9.1)	0(0)	0(0)	0(0)	15(68.2)
		전조 및 건반화성	3(13.6)	1(4.5)	1(4.5)	0(0)	0(0)	17(77.3)
		중급 테크닉 향상	4(18.2)	1(4.5)	0(0)	0(0)	0(0)	17(77.3)
		반주능력 향상	7(31.8)	1(4.5)	0(0)	0(0)	0(0)	14(63.6)
		초등교과서 중심 재제곡	3(13.6)	3(13.6)	1(4.5)	0(0)	0(0)	15(68.2)
		즉흥연주	2(9.1)	0(0)	0(0)	0(0)	1(4.5)	19(86.4)
		피아노 앙상블 연주	5(22.7)	0(0)	0(0)	0(0)	1(4.5)	16(72.7)
		기 타	0(0)	0(0)	0(0)	0(0)	0(0)	22(100)

자. 평가 방법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 방법으로는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아노 실기시험이 29.3%로 나타났고, 실기

시험과 필기시험이 17.3%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출석 및 수업 참여도가 27.3%로 나타났으며, 리포트 제출이 15.9%로 나타났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및 수업 참여도'에 평가 기준을 높게 측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담당 교수 및 강사들도 평가 기준을 맞추기가 애매하고 이에 출석 및 수업 참여도에 평가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아노 실기 능력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고 단기간에 향상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출석 및 수업 참여도'에 평가 기준을 높게 측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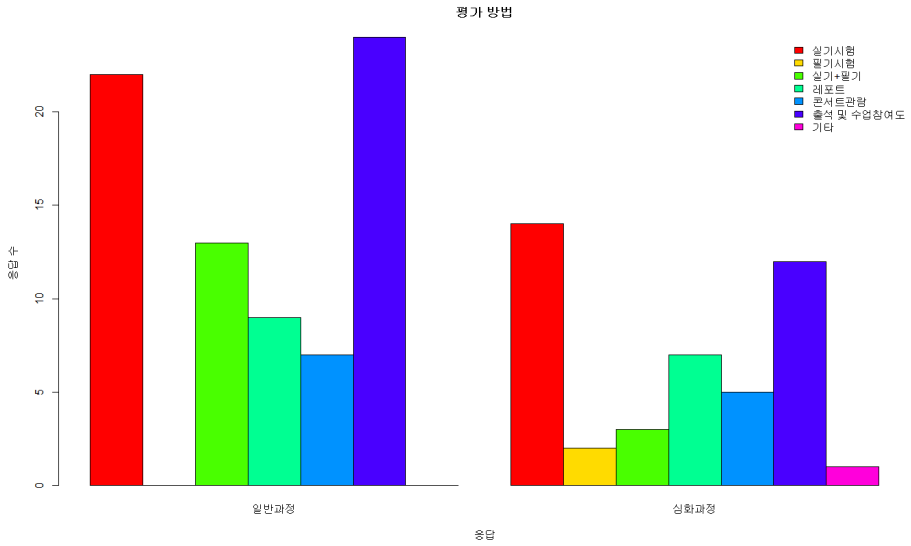
반면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음악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기평가 부분에 있어서 점수 비중을 높게 측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 리포트 제출, 콘서트 관람 등 다양한 음악성을 기르기 위한 평가 방법들을 사용해 수업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표Ⅳ-28> 평가 방법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21	일반 과정	실기시험	22(29.3)
		필기시험	0(0)
		실기시험 + 필기시험	13(17.3)
		리포트 제출	9(21.0)
		콘서트 관람	7(9.3)
		출석 및 수업참여도	24(32.1)
		기타	0(0)

심화 과정	실기시험	14(31.8)
	필기시험	2(4.5)
	실기시험 + 필기시험	3(6.8)
	리포트 제출	7(15.9)
	콘서트 관람	5(11.4)
	출석 및 수업참여도	12(27.3)
	기타	1(2.3)

다음은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평가 방법을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으로 나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Ⅳ-17] 평가 방법에 따른 비교 그래프

차. 평가 내용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 수업에 대한 평가 내용에는 어떠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50%가 반주 능력을 평가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43.5%가 피아노 솔로 연주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이론, 전조 및 건반화성, 리포트 제출, 피아노 테크닉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40.9%가 피아노 솔로 연주를 평가내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36.4%가 피아노 테크닉, 27.3%가 피아노 앙상블 연주를 평가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외에도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전조 및 건반화성, 리포트 제출, 콘서트 관람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의 평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반주 능력 및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해 초등 음악 수업을 지도할 때에 교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 교사가 음악 수업을 지도할 때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평가 내용면에서도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적인 평가내용과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수준 있는 평가내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Ⅳ-29> 피아노 실기 평가 내용

문항	구분	평가 내용	Likert 응답 / Likert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Q22	일반 과정	피아노 솔로 연주	10(43.5)	5(21.7)	1(4.3)	1(4.3)	1(4.3)	5(21.7)
		초견	0(0)	1(4.5)	3(13.6)	2(9.1)	2(9.1)	14(63.6)
		전조 및 건반화성	3(13.6)	2(9.1)	4(18.2)	0(0)	1(4.5)	12(54.5)
		피아노 테크닉	2(9.1)	2(9.1)	2(9.1)	0(0)	2(9.1)	14(63.6)
		반주능력	11(50.0)	4(18.2)	1(4.5)	0(0)	0(0)	6(27.3)
		피아노 앙상블 연주	2(9.1)	1(4.5)	2(9.1)	1(4.5)	3(13.6)	13(59.1)
		즉흥연주	0(0)	0(0)	3(13.6)	0(0)	3(13.6)	16(72.7)
		콘서트 관람	2(8.7)	3(13.0)	22(8.7)	0(0)	3(13.0)	13(56.5)
		리포트 제출	3(13.0)	4(17.4)	1(4.3)	0(0)	3(13.0)	12(52.2)
		음악이론	7(31.8)	4(18.2)	1(4.5)	0(0)	2(9.1)	8(36.4)
		기타	1(4.3)	1(4.3)	0(0)	0(0)	0(0)	21(91.4)
	심화 과정	피아노 솔로 연주	9(40.9)	1(4.5)	1(4.5)	0(0)	0(0)	11(50.0)
		초견	2(9.1)	2(9.1)	1(4.5)	0(0)	1(4.5)	16(72.7)
		전조 및 건반화성	4(18.2)	3(13.6)	2(9.1)	0(0)	0(0)	13(59.1)
		피아노 테크닉	8(36.4)	2(9.1)	0(0)	0(0)	0(0)	12(54.5)
		반주능력	7(31.8)	2(9.1)	0(0)	0(0)	0(0)	13(59.1)
		피아노 앙상블 연주	6(27.3)	0(0)	0(0)	0(0)	1(4.5)	15(68.2)
		즉흥연주	2(9.1)	0(0)	1(4.5)	0(0)	1(4.5)	18(81.8)
		콘서트 관람	3(13.6)	3(13.6)	1(4.5)	0(0)	1(4.5)	14(63.6)
		리포트 제출	4(18.2)	3(13.6)	0(0)	0(0)	1(4.5)	14(63.6)
		음악이론	2(9.1)	4(18.2)	1(4.5)	0(0)	0(0)	15(68.2)
		기타	0(0)	0(0)	0(0)	0(0)	0(0)	22(100)

카. 졸업 시 피아노 실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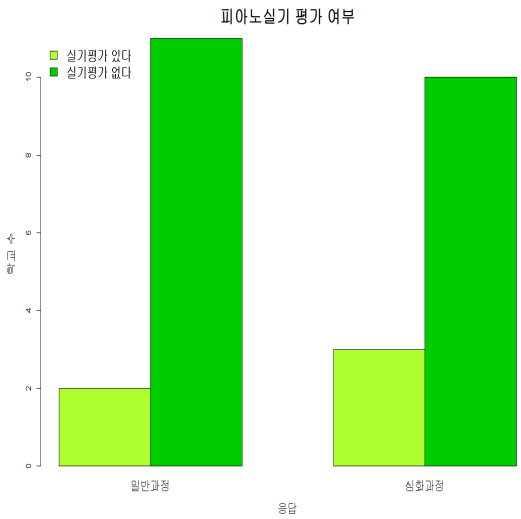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졸업 시험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3개의 학교에서는 졸업시험으로 피아노 실기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의 학교에서는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4개의 학교에서 실기평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0개 학교에서는 실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가 졸업 시험으로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들이 초등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음악 수업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 초등 교사들은 대학의 입학시험이나 졸업시험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것은 이들이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지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 수업을 지도할 때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피아노 실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실기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Ⅳ-30> 졸업 시 피아노 실기평가 여부

문 항	구 분	응답	학교 수(%)
Q23	일반 과정	실기평가가 있다	2()
		실기평가가 없다	11()
	심화 과정	실기평가가 있다	3()
		실기평가가 없다	10()

다음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졸업 평가로 피아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비교 그래프이다.



[그림Ⅳ-18] 졸업 시 피아노 실기 평가 여부에 관한 그래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중 졸업할 때에 피아노 실기 평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대학의 평가 방법을 알아보았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과서 제재 곡을 연주하거나 반주 및 앙상블 연주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졸업 연주에 피아노 솔로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 외에도 반주 및 앙상블 연주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며, 평가방법 중 즉흥연주에 관해서는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 모두 피아노 실기 평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기본 목표 중에 하나는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음악적 창의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즉흥연주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수업에 있어서 즉흥연주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 교사들이 음악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꼭 습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피아노 연주 능력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수업의 내용 및 평가 방법에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연경·함희주는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창조적 건반 기술 신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교사 양성 기관의 건반 악기 관련 교과목의 강의 내용에 건반 악기를 연습하면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작 즉흥 연주 학습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47] 이러한 즉흥연주 학습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활용해 즉흥연주를 들려주고 학생들은 이에 맞추어 즉흥적인 신체표현을 하고 이를 통해 음악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즉흥연주는 초등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으로 피아노를 활용해 실용적 건반기술을 습득하고 즉흥연주 기술을 익혀 이를 수업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교육해야 할 것이다.

---

47) 이연경·함희주,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창조적 건반 기술 신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음악교육연구』 Vol. 20(2001), p. 2.

<표Ⅳ-31> 졸업 시 피아노 실기 평가 방법

문항	과정	평가 방법	Likert 응답 / Likert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Q23-1	일반 과정	독주곡 연주 (졸업 연주)	2(9.1)	2(9.1)	0(0)	0(0)	1(4.5)	17(77.3)
		반주 및 앙상블 연주	4(18.2)	2(9.1)	0(0)	0(0)	0(0)	16(72.7)
		피아노 테크닉	1(4.5)	0(0)	1(4.5)	0(0)	0(0)	20(90.9)
		교과서 제재 곡 연주하기	5(22.7)	2(9.1)	0(0)	0(0)	0(0)	15(68.2)
		즉흥연주	0(0)	0(0)	0(0)	0(0)	1(4.5)	21(95.5)
		전조 및 건반화성	2(9.1)	1(4.5)	0(0)	0(0)	1(4.5)	18(81.8)
		기타	0(0)	0(0)	0(0)	0(0)	0(0)	22(100)
	심화 과정	독주곡 연주 (졸업 연주)	7(31.8)	3(13.6)	0(0)	0(0)	0(0)	12(54.5)
		반주 및 앙상블 연주	2(9.1)	2(9.1)	0(0)	0(0)	1(4.5)	17(77.3)
		피아노 테크닉	1(4.5)	4(18.2)	0(0)	0(0)	0(0)	17(77.3)
		교과서 제재 곡 연주하기	1(4.5)	2(9.1)	1(4.5)	0(0)	1(4.5)	17(77.3)
		즉흥연주	0(0)	0(0)	1(4.5)	0(0)	1(4.5)	20(90.9)
		전조 및 건반 화성	1(4.5)	0(0)	1(4.5)	0(0)	1(4.5)	19(86.4)
		기타	1(4.5)	0(0)	0(0)	0(0)	0(0)	21(95.5)

타.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 음악수업을 지도할 때에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어려움이 없는가에 관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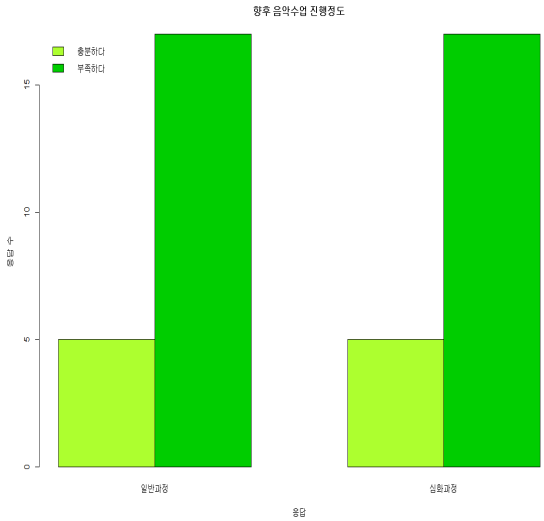
문 조사 결과,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 교육과정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만으로는 실제 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란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81.3%로 나타났고, 대학에서의 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2.7%로 나타났다. 사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해 많은 교과목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보다는 기초적인 영역만을 다룰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아노 수업의 이수기간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음악 실기는 짧은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야 기량을 닦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피아노가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비 초등 교사들이 피아노 실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업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개설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32>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문 항	과 정	응 답	응답 수(%)
Q24	일반 과정	충분하다	5(22.7)
		부족하다	17(81.3)
	심화 과정	충분하다	5(22.7)
		부족하다	17(81.3)

다음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듣는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에 따른 비교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Ⅳ-19]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에 따른 비교 그래프

파. 수업의 문제점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와 시간상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수준 차이로 인해 평가 기준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과 학교 기자재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부족으로 수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와 개

인별 수준차이로 인한 평가기준을 내기 힘들다는 의견과 교재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할 때에 학생들의 피아노 실기 수준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강신청에 따라 수업이 개설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개인별 수준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사는 일인당 5분 이하의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앞에 학생이 레슨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우선 수업시간이 부족하고 레슨 받는 학생 이외의 학생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5분 이하의 짧은 수업시간 동안에만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제 검사로만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수업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유형에 맞는 지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이러한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수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비 초등 교사들은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실제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정도로만 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지도 경험이 있거나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원양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는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교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과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Ⅳ-33> 수업의 문제점

문항	구분	수업의 문제점	Likert 응답 / Likert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Q25	일반 과정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	11(50.0)	5(22.7)	2(9.1)	0(0)	0(0)	4(18.2)
		개인별 수준차이 평가기준	7(31.8)	7(31.8)	1(4.5)	1(4.5)	0(0)	6(27.3)
		시간상의 부족	11(50.0)	5(22.7)	0(0)	0(0)	0(0)	6(27.3)
		교재선택	0(0)	0(0)	0(0)	3(13.6)	2(9.1)	17(77.3)
		학교 기자재 부족 및 관리소홀	1(4.5)	3(13.6)	1(4.5)	2(9.1)	1(4.5)	14(63.6)
		수업운영에 있어서 문제없음	0(0)	0(0)	1(4.5)	1(4.5)	3(13.6)	17(77.3)
		기타	0(0)	0(0)	0(0)	0(0)	0(0)	22(100)
	심화 과정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	4(18.2)	3(13.6)	2(9.1)	0(0)	0(0)	13(59.1)
		개인별 수준차이 평가기준	3(13.6)	5(22.7)	1(4.5)	1(4.5)	0(0)	12(54.5)
		시간상의 부족	6(27.3)	4(18.2)	0(0)	1(4.5)	0(0)	11(50.0)
		교재선택	1(4.5)	0(0)	0(0)	2(9.1)	1(4.5)	18(81.8)
		학교 기자재 부족 및 관리소홀	0(0)	0(0)	1(4.5)	0(0)	3(13.6)	18(81.8)
		수업운영에 있어서 문제 없음	0(0)	0(0)	1(4.5)	1(4.5)	0(0)	20(90.9)
		기타	0(0)	0(0)	0(0)	0(0)	0(0)	22(100)

하. 수업의 필요성

예비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 수업에 있어서 갖춰야 할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반주 능력 향상’과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을 많이 다루어야 하며, ‘초견 능력 향상’과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반주 능력 향상’과 ‘포괄적 음악성 개발’,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 익히기’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 시간에 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을 학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다면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 교사로서 습득해야 할 영역들을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이에 ‘피아노 반주 능력 향상’과 ‘초등 교과서 중심의 제재 곡 익히기’,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예비 초등 교사들이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음악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피아노 반주 능력을 키우고, 초등 교과서 재재 곡들을 익히며, 더 나아가 초견 능력, 건반화성, 음악분석, 시창, 청음, 스케일, 아르페지오, 전조, 즉흥연주 등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위한 피아노 연주 기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Ⅳ-34> 수업의 필요성

문항	구분	학습능력	Likert 응답 / Likert 비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Q26	일반교육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3(13.6)	1(4.5)	2(9.1)	1(4.5)	2(9.1)	13(59.1)
		초견 능력 향상	8(36.4)	8(36.4)	0(0)	1(4.5)	1(4.5)	4(18.2)
		전조 및 건반화성	7(31.8)	7(31.8)	1(4.5)	0(0)	0(0)	7(31.8)
		중급 테크닉 향상	1(4.5)	6(27.3)	3(13.6)	1(4.5)	2(9.1)	9(40.9)
		반주능력 향상	15(68.2)	4(18.2)	0(0)	0(0)	0(0)	3(13.6)
		초등교과서 중심 제재곡	13(59.1)	3(13.6)	0(0)	0(0)	0(0)	6(27.3)
		즉흥연주	1(4.5)	1(4.5)	3(13.6)	2(9.1)	3(13.6)	12(54.5)
		피아노 앙상블 연주	3(13.6)	0(0)	5(22.7)	0(0)	3(13.6)	11(50.0)
		포괄적 음악성 개발	8(34.8)	8(34.8)	1(4.3)	1(4.3)	0(0)	5(21.7)
		기타	0(0)	0(0)	0(0)	0(0)	0(0)	22(100)
	심화교육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4(18.2)	3(13.6)	2(9.1)	0(0)	1(4.5)	12(54.5)
		초견 능력 향상	6(27.3)	5(22.7)	0(0)	0(0)	0(0)	11(50.0)
		전조 및 건반화성	6(27.3)	4(18.2)	0(0)	0(0)	0(0)	12(54.5)
		중급 테크닉 향상	5(22.7)	2(9.1)	0(0)	0(0)	0(0)	15(68.2)
		반주능력 향상	11(50.0)	3(13.6)	0(0)	0(0)	0(0)	8(36.4)
		초등교과서 중심 제재곡	6(27.3)	4(18.2)	0(0)	0(0)	2(9.1)	10(45.5)
		즉흥연주	2(9.1)	1(4.5)	1(4.5)	0(0)	1(4.5)	17(77.3)
		피아노 앙상블 연주	3(13.6)	2(9.1)	0(0)	0(0)	1(4.5)	16(72.7)
		포괄적 음악성 개발	9(40.9)	2(9.1)	0(0)	0(0)	1(4.5)	10(45.5)
		기타	1(4.5)	0(0)	0(0)	0(0)	0(0)	21(95.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현황 및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연구 문제 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1) 초등교원 양성 대학의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별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예비 초등 교사들은 대학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의 기초 영역들로 구성된 수업들을 교육받고,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목에 관해 심도 있고, 전문성은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선택한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 17~24학점을 더 교육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교육과정으로 '서양 음악의 이해'와 '초등 음악교육 및 실기' 두 과목만이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전주교대의 경우에도 '음악교과 교육론'과 음악실기' 단 두 과목만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이는 음악교육 관련 교과목만 12과목이나 개설되어져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와 10과목이 개설되어져 있는 경인교대, 서

울교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심화 교육과정으로 음악교육에 관한 수업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교육에 필요한 교사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처럼 단 두 과목만을 교육받고 실제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음악 교과의 경우 다른 일반 교과와는 달리 이론과 실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로서 최소한의 학습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프리번은 음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4년의 피아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교 운영 실정에 맞추어진 획일적인 교과목 편성이 아니라 예비 초등 교사들이 실제 교사가 되어 음악수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능력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교과목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피아노 실기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학습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고려해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추가적으로 선택하게하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 13개 대학 중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12개 대학에서 음악교육에 관한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음악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와 음악 실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 사실 교사가 음악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기능력을 적절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처럼 어느 한쪽에 치중된 교과목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장기범 외가 제시한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교과목 표준안'처럼 학생의 수준 및 능력,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를 적절하게 변형시킨 교과목 표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기범 외가 제시한 200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에 관한 교과목 표준안과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조사한 2014학년도 음악 심화과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교과기본능력,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실기포함)을 모두 포함시켜 가장 근접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는 경인교대, 서울교대, 한국교원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해 음악 이론교육과 실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는 교과목을 편성할 때에 획일적인 교과목 편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파악해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기능력을 고루 갖춘 최소한의 교과목에 대한 표준안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실기에 관한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하며, 이에 맞추어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때에 지금보다 더 낳은 양질의 교사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음악 실기 교육에 관한 학점 및 수업시수

음악 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론지식 뿐 아니라 실기능력도 고루 갖추어진 교사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교육 중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운영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제 초등 교사들이 음악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반악기는 피아노이며, 음악 교육에 있어서 반주, 시창, 청음, 즉흥연주, 앙상블 등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고, 음악적 이해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이다.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국 13개 초등 교원 양성 대학 중 이화여대, 청주교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에서는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의 특성상 초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과목을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한 최소학점을 정해 놓은 상태이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점을 늘려 운영할 수가 없으며, 또한 실기과목은 실습에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점에 비해 수업 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아노 실기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점은 1학점으로 수업시간은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한 이수학기에 있어서도 1학기에서 최대 6학기까지 각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각 대학의 피아노 전공 교수의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화여

자대학교나 제주대학교에는 피아노 전공 교수가 배정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심화 교육과정으로 음악에 관한 수업이 아예 개설되어져 있지 않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장구나 가야금을 음악실기 영역으로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음악에 관한 수업을 개설할 때에 교수 구성원에 따른 수업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 및 필요에 부합할 수 있는 수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 할 경우 피아노에 관한 실기평가를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피아노 실기능력에 있어서 개인별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피아노를 전혀 다루어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고, 과거 피아노를 조금 배웠지만 초급수준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준별 차이에 따른 지도방법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이외에 추가로 시간을 마련해 지도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들은 학점에 비해 수업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실기지도가 이루어질 만큼 초등 교사에게 있어서 피아노 실기 능력은 교사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점대비 수업시수가 동일하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업 운영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수준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클래스 피아노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 및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의 교수방법에 있어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피아노 실기 수업의 운영현황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피아노 실기 수업에 관해서는 필수과목으로 이수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수강 인원을 최소 26~30명, 30명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디지털 피아노가 설치되어져 있는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초등 교사가 되어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수업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일인당 5분 이하의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지도를 받고 있으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레슨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수업시간은 2시간이라고 해도 일인당 실제 지도 받는 시간은 5분이하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피아노에 관한 실기수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있다. 사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은 클래스 피아노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들 대부분은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과거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대한 운영방식, 수업유형,

교수방법 등에 관해 파악하기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수업의 지도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새로운 피아노 교수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 새로운 교수방법에 관해 교육받아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분반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학습기자재

본 연구를 통해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어쿠스틱 피아노는 섬세한 터치와 다양한 악상표현, 나무의 울림 등을 통한 자연음까지 느낄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악기이기는 하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처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쿠스틱 피아노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우선 어쿠스틱 피아노는 많은 공간차지와 소리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교실 안에 동시에 많은 피아노를 들여놓을 수가 없고 이동 및 조율,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쿠스틱 피아노와 디지털 피아노를 두고 어떤 악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설명 할 수는 없지만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처럼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피아노 실기를 지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결과,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대부분 디지털 피아노의 기능 및 활용방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한 채 음색을 피아노에만 고정시켜 놓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피아노는 다양한 음색과 기능들이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악기의 음색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음악적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다양한 리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리듬의 특성이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자동 반주기능 등을 활용하면 반주 패턴부터 화성 진행까지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악기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 클래스 피아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피아노 랩 시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설치되어져 있었으나 이러한 기자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디지털 피아노가 한 교실에만 설치되어져 있다 보니, 학생들의 개인연습 장소나 수업시간 외에 사용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고, 악기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용할 수 없는 악기들이 많아 수업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동시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피아노를 활용해 수업을 운영할 때에 한 교실 안에만 디

지털 피아노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분반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어 설치되어야하고, 학생들의 개인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연습실 확보와 악기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디지털 피아노의 활용방법 및 기능들을 잘 익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예비 초등 교사를 위한 피아노 교재 개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피아노 실기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본 결과, 42.9%가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 교수가 직접 곡을 발췌해서 만든 교재는 '반주능력 향상'과 '초등 교과서 중심의 제재 곡 익히기', '초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기존에 출판되어져 있는 예비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재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사 및 지도자를 위한 피아노 기초'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교재는 화음진행, 반주패턴, 여러 가지 조성, 피아노 앙상블 등의 내용을 교재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난이도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별 차이가 큰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실기 수업에서 활용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기존의 교수가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설명도 부족하고, 피아노 연주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피아노에 관한 주법 설명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난이도를 고려한 배치가 아니었다. 또한 화성에 있어서도 주로 주요 3화음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성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선율진행에 있어서도 순차진행부터 도약진행까지 단계별로 배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피아노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존의 교수들이 만들에 놓은 교재들을 사용해 연습한 학생들은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손가락의 회전이나 교체방법, 운지법 등을 어떻게 결정지어야 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의 운지법과 이완되지 않은 뻣뻣한 손으로 초견하기에 급급하고, 또한 이러한 교재를 사용한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면 피아노 반주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반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궁극적으로 초등 교사들에게 피아노 연주기술을 향상시켜 반주 능력까지 개발시켜 주어야 하는데, 단지 교재에 나와져 있는 제재 곡만을 반주 할 수 있다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실기 수업에 있어서의 교재는 난이도를 고려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재들은 피아노 연주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다섯 손가락 패턴, 회전과 교체, 축소와 확장, 손의 확장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 교사를 위한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재를 선택할 때에는 외국의 교재를 무조건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에 출판되어져 있는 교재들의 난이도를 고려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선

택해 주어야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제재 곡을 부교재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재 곡만을 가지고 교재를 편집하려면 교재의 구성이나 난이도 면에서 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연습곡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난이도를 고려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아노 연주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하며, 동시에 음악이론까지 교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리듬에 관해서는 박자를 파악할 수 있는 4분 음표, 8분 음표, 2분 음표, 온 음표 등을 학습시키고, 4/4박자, 4/3박자 등의 박자로 발전시켜, 서양 리듬뿐만 아니라 국악 리듬까지 확대시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조성에 있어서도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등 조표가 쌓여지는 순서에 맞추어 장조에서 단조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다섯 손가락 패턴을 사용해 건반에서의 음계를 운지법을 통해 기억하고 조성의 변화를 이해시켜야한다. 음정의 경우에는 손의 축소와 확대를 통해 2도 음정의 차례가기와 3도 음정의 건너뛰기를 학습시켜 음정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반음과 온음관계에 있어서의 변화표(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를 이해시키고, 동시에 시창과 청음까지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손의 회전과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한 단선율부터 복선율, 화성과 함께하는 선율까지 교재에 포함시켜 학습시키고, 학습자의 난이도 체계에 맞춰진 독주곡 및 앙상블 곡(듀엣, 그룹앙상블, 합주 등)도 다양하게 선별해 교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 중심의 제재 곡을 부교재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에 학습자의 수준 및 학습 능력을 고려해 담당 교사가 직접 곡을 선별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재는 난이도 체계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의 교재를 적절히 활용하고 우리나라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들을 연습곡으로 포함시켜 교과서 이외의 다른 곡들도 다룰 수 있도록 피아노 연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교사가 음악 수업을 진행할 때에 피아노 실기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예비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관련 교육과정과 음악 실기에 관한 수업들을 2014학년도 교육과정 편제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아노 교육과 관련된 수업의 운영 형태 및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수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 학과 조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음악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전국 13개 대학 중 10개의 대학에서는 음악관련 교양과정 수업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에서는 음악관련 교양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지 않았다.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전국 13개 대학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11개 대학에서 모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었다. 또한 장기범 외가 주장한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교과목 표준안을 토대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2014학년도 음악 심화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교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장기범 외가 주장한 교과기본능력,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실기포함)을 골고루 포함시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었으며, 나머지 9개 대학에서는 각 대학별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에 맞추어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둘째, 각 대학별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학점 및 시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전국 13개 대학 중 이화여자대학교와 청주교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에서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8개 대학을 제외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에서는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경우 수업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점에 비해 수업시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 피아노 교육에 관한 수업의 설강인원을 조사한 결과 56%가 26~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명 이상이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업의 형태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의 유형으로 개설되어져 있는 것인데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실제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클래스 피아노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인당 5분이하의 일대일 개인레슨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이 잘못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부분이다.

넷째,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디지털 피아노가 설치되어져 있는 교실에서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은 디지털 피아노에 대한 사용 방법 및 기능 등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음색을 피아노에만 고정시켜 놓고 디지털 피아노를 사용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서 디지털 피아노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섯째, 초등 교사를 위한 피아노 실기지도의 내용은 대부분 '반주능력 향상'과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 익히기' 라고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강의 수단으로는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42.9%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에 초등 교사들을 위한 피아노 교재가 부족하고 이미 출판된 교재들은 대부분 난이도의 편차가 심해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실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재의 구성에 있어서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들은 초등학교 교과서 중심 제재 곡들을 한 권으로 묶어 놓았을 뿐 이론적인 설명도 부족하고, 피아노 연주 능력을 기르기 위한 주법 설명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난이도 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편집된 교재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음악교육 관련 교과과정에 있어서 각 대학별 편의에 따른 교과목 편성이 아닌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과목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클래스 피아노 수업에 있어서 수업의 본질과 운영형태에 대한 지식을 갖춘 교원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담당 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향후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난이도 체계를 고려하고 초등 교과서 중심 제재 곡 등을 포함시킨 우리나라 초등 예비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남억우 외.『교육대학 발전모형과 평가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1989.

석문주.『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4.

성진희.『클래스 피아노란 무엇인가』.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승윤희·민경훈·양종모·정진원 공저.『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음악교육』. 서울: 학지사, 2013.

장기범·민경훈·권태욱·주대창,『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Bernstein, S.『자기 발견을 향한 피아노 연습』. 백낙정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3.

Mursell, J. & Glenn, M.『음악교육심리학』. 서울: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세광음악출판사, 1991.

학술지

곽영순·최승언. “과학과 수업평가 기준의 역할 및 개발 방안 연구.”『한국지구과학회 학회지』Vol. 26, No. 5. (2005), 367-376.

곽현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음악교과를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Vol. 26, No. 5. (2010), 69.

권수미. “음악대학 부전공 피아노 실기 관련과목 실태조사.”『음악교육연구』Vol. 31. (2006), 33.

_____.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민족음악학회』Vol. 39. (2010), 317.

석문주. “2000년을 향한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의 개선 연구.”『연세음악연구』Vol. 3. (1995), 2.

이연경, “Group Piano 교수법의 효율성에 관한 관계 문헌의 조사 및 분석,″ 『이화음악논집』No. 11. (1988), 20.

이연경·함희주.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창조적 건반 기술 신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음악교육연구』Vol. 20, No. 1. (2001), 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초등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초등교육학회지』Vol. 14, No. 3. (2001), 89-116.

학위논문

정정현. “초보 피아노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통한 교사 교육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외국 자료

D'Arms, E. “Contemporary music project.” *Music Educators Journal.* Vol. 59. 1973.

Freeburne, F. G. “Functional secondary piano training of music teachers.” *Dissertion Abstract Internaional.* UMI No.00-06352, Vol. 13. 1952.

Haddon, E. “Instrumental and vocal teaching: How do music students learn how to teach?.”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Vol. 26, No. 1. 2009.

Kingsbury, C. L. “Harmony skills used by selected high school instrumental music teachers.” Indian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45.

Kwon, S. “A development of korean piano method with accompaniment MIDI diske for college majors whose primary instrument is not piano.” Ed. D,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006.

Lowder, J. “Evaluation of a sight-reading test administered to freshman piano class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 21. 1973.

Uszler M. & Larimer F. “The piano pedagogy major in the college curriculum: A handbook of information and guidelines. Part I: The undergraduate piano pedagogy major.” Princeton, *NJ: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1984.

Winslow. R. W. & Dallin, L. “Music skill for classroom teacher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980.

웹사이트

http://home.ewha.ac.kr/~eee 2014년 2월 18일 접속.

http://primary.knue.ac.kr/smain.html 2014년 2월 18일 접속.

http://sara.jejunu.ac.kr 2014년 3월 6일 접속.

http://www.bnue.ac.kr 2014년 3월 26일 접속.

http://www.cnue.ac.kr 2014년 3월 28일 접속.

http://www.cue.ac.kr 2014년 4월 8일 접속.

http://www.dnue.ac.kr 2014년 4월 16일 접속.

http://www.eduhope.net 2014년 2월 28일 접속.

http://www.ginue.ac.kr 2014년 4월 18일 접속.

http://www.gnue.ac.kr 2014년 3월 27일 접속.

http://www.jnue.kr 2014년 2월 18일 접속.

http://www.snue.ac.kr 2014년 5월 14일 접속.

http://www.bnue.ac.kr/main/index.jsp 2014년 5월 14일 접속.

https://www.cje.ac.kr 2014년 3월 20일 접속.

https://www.gjue.ac.kr 2014년 4월 3일 접속.

ABSTRACT

Analysis on Current Piano Curriculum in Colleges of Elementary Teacher Education

Hey-Jin Kim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Hansei University

When it comes to music education,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able to enable them to not only obtain basic music theory knowledge but also to run a class as music teachers. Specifically, systematic and specific piano education would be essential for them to improve piano practical techniques.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music curriculum and classes related to practical piano skills in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o understand the methods of running piano classes and curriculum.

For this study, I analyzed music curriculum and performance-related classes of 13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this analysis I did a survey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se performance-related classes are managed and what they cover. I targeted 36 people consisting of professors, lecturers, and teaching assistants whose responsibilities include the overseeing of the piano performance related classes in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29 items; 10 questions about fundamental information and 19 questions about perceptions of professors and lecturers toward music classes. All survey questions regarding fundamental information was answered and 23 of 29 survey papers on the perceptions of professors and lecturers toward music classes were completed and return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ly, music curriculum of each college that trains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ffer from each other, and in the case of music performance classes, they have more class hours compared to its credit hour.

Secondly, music intensive courses in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ose in 2004. Moreover, when colleges do not have piano major professors, they do not even open the intensive piano courses.

Thirdly, piano harmony classes are not divided based on a students' level, but they are run for the whole group regardless their level. One

class is composed of about 26 to 30 students, and less than five minutes of one-on-one interaction is afforded.

Fourthly, colleges that tra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offer the piano performance classes with digital pianos, and it is found that some schools have up to 46 digital pianos in one classroom.

Fifthly, the content of the piano harmony classe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about 'improvement of accompanying ability' and 'how to teach the songs in elementary music text books'. And, 42.9% of colleges use their own textbooks, of which the pieces are selected by their professors.

Therefore, the music curriculum should be standardized and teacher training and curriculum about keyboard harmony classes should be made available for professors and instructors who teach piano performance classes. At the same time, teaching materials containing pieces from elementary music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that consider their level of difficulty.

부 록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피아노 교육과정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 조사에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음악 교과목 중 피아노 교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신다면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한세대학교 대학원 피아노교수학 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 권수미

연 구 자 : 김혜진

현재 교육대학교 음악관련 교과목은 **'일반과정'** 과 **'심화과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에 본 설문지는 교육대학교 '일반과정' 과 '심화과정' **피아노 (건반악기) 실기**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과목 개설 여부>

1. 현재 본교에는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개설되어져 있다.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일반과정		
심화과정		

2.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다면 **총 몇 과목**인가요?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음악실기 Ⅰ** 일 경우→ **한 과목**, **음악실기 Ⅰ,Ⅱ** 일 경우→ **두 과목** 등으로 표시해 주세요.)

구 분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과목	여섯과목이상
일반과정						
심화과정						

<과목의 명칭>

3. 피아노 실기와 관련된 수업의 **강좌명**은 무엇입니까?

구분	강좌명1	강좌명2	강좌명3	강좌명4	강좌명5	강좌명6
일반 과정						
심화 과정						

<이수 학기 및 구분>

4.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어떤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나요?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영 역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필수과목						
	선택과목						
	선택과목이지만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심화 과정	필수과목						
	선택과목						
	선택과목이지만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학점 및 시수>

5.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몇 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기타인 경우에는 학점을 작성해 주세요.)

구 분	학점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1학점						
	2학점						
	3학점						
	기 타						
심화 과정	1학점						
	2학점						
	3학점						
	기 타						

6. 현재 본교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몇 학기 동안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분	영역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일반 과정	필수과목								
	선택과목								
심화 과정	필수과목								
	선택과목								

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최소 몇 학기**동안 이수해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일반과정								
심화과정								

<수강 인원>

8. 현재 본교에서는,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설강 인원**을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인원수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10명 이하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6명~30명						
	30명이상						
심화과정	10명 이하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6명~30명						
	30명이상						

9. 현재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수강 인원**은 몇 명인가요?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인원수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10명 이하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6명~30명						
	30명이상						
심화과정	10명 이하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6명~30명						
	30명이상						

1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의 **수강 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인원수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심화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수업의 운영 및 형태>

11.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기타 선택 시 수업의 형태를 작성해주세요.)

구분	수 업 의 형 태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눠진 **수준별 그룹 수업**						
	수준과 상관없이 수강 인원수에 따라 나눈 **분반 수업**						
	1:1 개인 레슨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기 타 ;)						
심화과정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눠진 **수준별 그룹 수업**						
	수준과 상관없이 수강 인원수에 따라 나눈 **분반 수업**						
	1:1 개인 레슨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기 타 ;)						

12. 현재 그룹 및 분반 수업으로 수업을 운영하신다면, **한 그룹**의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셨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인원수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심화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1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룹 및 분반수업으로 수업이 운영한다면 **한 그룹**의 **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인원수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심화과정	1명～5명						
	6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1명～25명						
	25명이상						

14. 현재 **1:1 개인레슨**으로 수업이 운영한다면, 학생 한 명당 **실제 지도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지도시간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5분 이하						
	10분 이하						
	15분 이하						
	20분 이하						
	25분 이하						
	25분 이상						
심화 과정	5분 이하						
	10분 이하						
	15분 이하						
	20분 이하						
	25분 이하						
	25분 이상						

15.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1:1 개인레슨으로 수업을 운영할 경우 학생 **한 명당 지도 시간**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분	지도시간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5분 이하						
	10분 이하						
	15분 이하						
	20분 이하						
	25분 이하						
	25분 이상						
심화 과정	5분 이하						
	10분 이하						
	15분 이하						
	20분 이하						
	25분 이하						
	25분 이상						

<사용 악기>

16. 그룹 및 분반 수업으로 수업을 운영 할 경우, 사용하는 **건반 악기**는 무엇이며 현재 강의실에는 **몇 대**의 **악기**가 구비되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 선택 시 사용하는 **악기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사용악기		강 좌 1		강 좌 2		강 좌 3		강 좌 4		강 좌 5		강 좌 6	
			사용여부	악기수	사용여부	악기수	사용여부	악기수	사용여부	악기수	사용여부	악기수	사용여부	악기수
일반과정	디지털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오르간													
	키보드													
	기타/ 악기명													
심화과정	디지털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오르간													
	키보드													
	기타/ 악기명													

17. 1:1 개인레슨으로 수업을 운영 할 경우, 사용하는 **건반 악기**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일 경우 사용하는 **악기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건반악기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디지털피아노						
	업라이트피아노						
	그랜드피아노						
	오르간						
	키보드						
	기타(악기명;)						
심화 과정	디지털피아노						
	업라이트피아노						
	그랜드피아노						
	오르간						
	키보드						
	기타(악기명;)						

<수준 파악>

1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기 초**에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피아노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분	수준 파악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예**, 필요합니다.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화 과정	**예**, 필요합니다.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19. 귀하께서는 학기 초에 수업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피아노 수준**을 **파악**하셨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분	수준 파악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예**, 파악하였습니다.						
	아니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심화 과정	**예**, 파악하였습니다.						
	아니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19-1. 학기 초에 학생들의 피아노 실기 수준을 파악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하셨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19번에서**'예'**라고 하신 분만 표시해주세요. 기타 방법일 경우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구분	수 업 형 태	강좌 1	강좌 2	강좌 3	강좌 4	강좌 5	강좌 6
일반과정	담당교사가 수준별로 곡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게 하고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와 학생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가 초견 곡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가 출제한 음악이론 시험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기타방법 ( )						
심화과정	담당교사가 수준별로 곡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게 하고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와 학생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가 초견 곡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교사가 출제한 음악이론 시험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였다.						
	기타방법 ( )						

<교재 선택>

20. 현재 귀하께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 선택 시 **교재명**을 적어주세요.)

구분	교 재 선 택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과정	바이엘, 하농, 체르니 등 (테크닉 교재)						
	반주법 교재						
	소나타 혹은 소나티네						
	대중가요						
	재즈 곡집						
	교과서 수록곡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						
	기 타 (교재명;)						
심화과정	바이엘, 하농, 체르니 등 (테크닉 교재)						
	반주법 교재						
	소나타 혹은 소나티네						
	대중가요						
	재즈 곡집						
	교과서 수록곡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						
	기타 (교재명;)						

20-1. 학교 교수가 곡을 직접 발췌해서 만든 교재를 사용한다면 그 **교재**는 어떠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해당자만 답해주세요. 기타 선택 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교재의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과정	연주 레퍼토리 늘리기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중급 테크닉 향상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반주능력 향상					
	초등교과서 중심의 재제 곡 익히기					
	즉흥연주					
	피아노 앙상블 연주					
	기타 ( )					
심화 과정	연주 레퍼토리 늘리기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중급 테크닉 향상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반주능력 향상					
	초등교과서 중심의 재제 곡 익히기					
	즉흥연주					
	피아노 앙상블 연주					
	기타 ( )					

<평가 방법>

21. 본 수업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 선택 시 평가방법을 적어 주세요.)

구분	평가방법	강좌1	강좌2	강좌3	강좌4	강좌5	강좌6
일반 과정	실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 필기시험						
	리포트 제출						
	콘서트 관람						
	출석 및 수업참여도						
	기타 (　　)						
심화 과정	실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 필기시험						
	리포트 제출						
	콘서트 관람						
	출석 및 수업참여도						
	기타 (　　)						

22. 본 수업의 **실기 평가 내용**에는 어떠한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 선택 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평가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과정	피아노 솔로 연주					
	초견					
	전조 및 건반화성					
	피아노 테크닉					
	반주능력					
	피아노 앙상블 연주					
	즉흥연주					
	콘서트 관람					
	리포트 제출					
	음악이론					
	기타(　　)					
심화 과정	피아노 솔로 연주					
	초견					
	전조 및 건반화성					
	피아노 테크닉					
	반주능력					
	피아노 앙상블 연주					
	즉흥연주					
	콘서트 관람					
	리포트 제출					
	음악이론					
	기타(　　)					

23. 현재 본교에서는 졸업 시험으로 **피아노 실기 평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피아노 실기 평가가 있다.	피아노 실기 평가가 없다
일반과정		
심화과정		

23-1. 현재 본교에서 피아노 **실기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면,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해당자만 답해주세요. 기타일 경우 **평가 방법**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평가 방법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과정	독주곡 연주(졸업 연주)					
	반주 및 앙상블 연주					
	피아노 테크닉					
	교과서 제재 곡 연주하기					
	즉흥연주					
	전조 및 건반화성					
	기타 ( )					
심화 과정	독주곡 연주(졸업 연주)					
	반주 및 앙상블 연주					
	피아노 테크닉					
	교과서 제재 곡 연주하기					
	즉흥연주					
	전조 및 건반화성					
	기타 ( )					

<수강자들의 음악적 향상도>

24. 본교에 개설된 피아노 관련 수업을 듣고 실제 초등 교사가 되었을 때, **음악수업**을 어려움 없이 잘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구 분	예. 충분합니다.	아니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일반과정		
심화과정		

<수업의 문제점>

25. 귀하께서 수업하시면서 **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 기타 의견 일 경우 작성해 주세요.)

구분	수업의 문제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과정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					
	개인별 수준차이로 인한 평가기준					
	시간상의 부족					
	교재선택					
	학교 기자재 부족 및 관리소홀					
	수업의 문제점 없음.					
	기타의견 ( )					
심화 과정	학생의 수준별 수업지도					
	개인별 수준차이로 인한 평가기준					
	시간상의 부족					
	교재선택					
	학교 기자재 부족 및 관리소홀					
	수업의 문제점 없음					
	기타의견 ( )					

<수업의 필요성>

26. 피아노 실기에 관한 수업을 통해 초등 예비교사들이 길러야 할 **학습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주십시오. 기타일 경우 작성해 주세요.)

구분	학습능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과정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중급 테크닉 향상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반주 능력 향상					
	초등교과서 중심의 재제 곡 익히기					
	즉흥연주					
	피아노 앙상블 연주능력 향상					
	포괄적 음악성 개발					
	기타( )					
심화 과정	연주 레파토리 늘리기					
	초견 능력 향상					
	전조 및 건반화성					
	중급 테크닉 향상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반주 능력 향상					
	초등교과서 중심의 재제 곡 익히기					
	즉흥연주					
	피아노 앙상블 연주능력 향상					
	포괄적 음악성 개발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